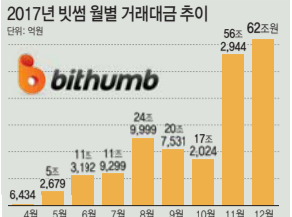




코스피	2499.75 (-10.48)	코스닥	834.91 (+4.92)
금리(미국 3년)	2.17 (+0.02)	환율(원/달러)	1071.90 (+4.80) (10일)



[종합]
거래액 56조 '코인 공룡'
회원자산 현황 분기별 공개
03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개혁… 노사정 대화 복원”

출생률 목표제시 보다 '삶의 질' 해결이 먼저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비가 **희망**이다

(3부) ①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국가 주도 정책 공감 부족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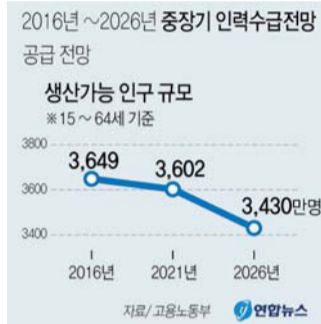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는 오는 2026년까지 만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18만 명이나 줄어들 것인 암울한 전망이 담겨 있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주 원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저출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역대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80~10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는 낭패를 봤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국정 최우선 과제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으로 설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제시하는 국가 주도 정책으로 국민적 공



감이 부족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저출산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즉,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여성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회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는 당연한 권리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 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5면에 계속)

/최신용 기자 grandtrust@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북핵 해결 도움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해 끊임없이 소통 강화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난 9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키로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가능하면 고위급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지난해보다 16.3%나 올라 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선 "다소 혼란스럽고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고용 위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삼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취임 후 두 번째이자 신년으로 처음인 이날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이 25분 가량 신년사를 발표하고 청와대를 출입하는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직접 지명해 질문을 받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전날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언급하며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면서 "당장의 통일을 원하기보다 임기 중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천명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등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될 수 없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여건이 조

성돼야하고 어느 정도 성과도 담보돼야 한다.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성사된 남북 대화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이 추구하는 노선과 다르고 정책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엔 (미국과)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 "북한이 도발할수록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

왔는데 그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국제사회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더 하나가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한 신년사 첫 부분을 '일자리'에 대한 내용으로 채웠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면서 "▲추경 예산 집행 ▲정부 지원체계 전면 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타협을 통한 최저임금 16.4% 인상 ▲일자리 상생 위한 노사간 노력 등이 모두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보험 지원, 4대 보험료 세액공제 등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를 잘 이용만 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 앞으로 제기될 노동분야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와 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과 끊임없는 소통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면서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평창올림픽 후원 나선 재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평창올림픽조직위)와 함께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후원기업 신년 다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신동빈 롯데 회장, 성기학 영원아웃도어 회장 등 기업인 70여명이 참석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계는 그동안 여러 동계종

목의 꾸준한 후원을 통해 한국이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보탤"면서 "올림픽 유치 당시에도 여러 경제계 인사들이 체육계 및 정부 인사들과 함께 최전선에서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축사에서 "경제계의 노력 덕분에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후원사를 이미 확보했고 그동안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장권 판매도 부쩍 늘었다"면서 "경제계의 도움이 정부나 조직위원회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양승훈 기자 ysw@



이낙연 국무총리(앞줄 왼쪽 두번째)가 10일 낮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을 위한 후원기업 신년 다짐회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후원사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뒷줄 언더) 등과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소비자가전쇼(CES) 2018'이 9일(현지시간)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화려한 여정에 돌입했다. (왼쪽부터)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전시장에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정은미 기자

전세계 4000개 기업 '첨단 신기술' 각축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소비자가전쇼(CES) 2018'이 9일(현지시간)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화려한 여정에 돌입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가전·IT 4000여개 기업, 18만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올해 CES의 슬로건은 '스마트

시티의 미래(The Future of Smart Cities)'다. 지난해 '스마트 홈(가전제품의 연결)'에서 연결성(Connectivity) 개념이 도시 단위로 확장된 것으로, 올해는 '스마트시티(도시의 공공기능을 연결)'의 모습이 그렸다.

이러한 주제에 맞게 전시장을 마련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존재감을 자랑하듯 몰려드는 관람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관련기사 8면▶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참가 업체 중 가장 큰 2768㎡ 규모

의 전시관을 마련했다. 전시장은 개막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한 146형 모듈러 TV '더 월' 전시관에는 관람객이 몰려들어 걸기도 힘들 정도였다.

LG전자 전시관 역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인공지능(AI) 전시존인 'LG 씽큐 존'에는 LG가 구현하고 하는 미래 AI 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밀려들여왔다.

이번 CES에 처음으로 수소연료전지 전기차(FCEV·수소전기차) '넥소(NEXO)'를 공개한 현

대자동차 전시장에는 이를 보려는 관람객들로 전시장이 인파에 둘러싸였다.

이날 라스베이거스에는 화려하게 개막한 CES를 질투하듯 약 110여일만에 장대비가 쏟아졌다. 주요 전시장인 컨벤션센터(LVCC)는 비가 드문 사막의 라스베이거스에 지어져서인지, 천장 곳곳에서 비가 새면서 삼성전자 등 일부 업체가 빗물 받는 통을 설치하는 등 웃지 못할 모습도 연출됐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논란의 중심 '靑 청원 게시판' 성토장 변질 vs 대의 민주주의 보완장치

국민 목소리 즉각 반영 '큰 호응'
국정현안 관련 없는 게시글 많아
각종 민원, 광장에 매몰 우려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6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누리집 캡처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장치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와 함께 무조건적인 '성토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부터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인한 상인들의 분노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은 여론의 지표이자 이슈의 발화점으로 작용해왔다. 이어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주취감형 폐지 등 국민의 의견이 분분한 사안부터 공분을 일으킨 범죄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감자'로 가득했다.

◆거름망 구실을 한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일종의 '거름망'이 작동하는 셈이다. 게시판 안내문에는 '일

반 민원 혹은 제안, 정책 참여 등은 국민 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달라'고 적혀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무원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를 '높은 곳'에서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청원 게시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최근 서울시 자치구에 민원을 제기했던 이모(30) 씨는 "각 지자체의 민원 처리 과정이 굉장히 길고,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대중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을 넣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 사실을 잘 아는 국민이 게시판에 목소리를 올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선 각종 민원이 청와대 게시판으로 향하는 현상을 두고 '떼범 창구'라고 규정한다. 학계는 이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한다. 청원 게시판이 과도기적 역할을 하면서 생긴 진통이라는 설명이다.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두순 재심 청원에 61만5000여명이 참여한 것은 국민이 그만큼 절박하고 호소할 곳 없었다는 뜻"이라며 "국회를 통한 입법의 경우, 일반인 입장에서 우리 지역구의 원 아니면 유명 의원에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이 안 보인다. 게다가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투표와 국회 입법 외에 시급하거나 절박한 문제에 대한 청원은 주권 행사의 한 방법이다. 미국 백악관 사례를 벤치마킹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로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토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으로 비선출직 관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점 역시 청원 게시판의 수요를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חק각사 김모(33) 씨는 "지난 정부 이후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이나 정당을 통한 국회 내 어젠다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내가 뽑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자 일선 공무원들은 민원인으로부터 청와대 청원 이 야기를 듣는 일이 늘었다.

현직 공무원 A씨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적겠다'며 업포를 놓는 민원인이 종종 있다"며 "민원에는 법의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높은 곳'에 얘기하면 공무원도 원칙 없이 무조건 따를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가끔 보인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풀뿌리에서 국회 내 어젠다로 흐르는 대의민주주의의 속 목소리가 하나의 광장에 매몰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원 게시판이 일단 대통령 눈에 띄고 보자는 '성토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7일~10일 살펴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좀과 값을 내려달라' '외국인에게 장가가야 하니, 한국어시험이라는 걸립들을 해결해달라' '군필자 전원을 공무원 시켜달라' '종합격투기를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어달라' 등 국정 현안과 관련 없는 내용이 쉽게 눈에 띄었다.

/이범중 기자 jaker@metroseoul.co.kr

이낙연 "대·중견·중기, 상생·공정 생태계 마련"

2018 중소기업 신년인사회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업 사이의 기술과 인력의 탈취를 엄벌하겠다. 또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시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중소기업의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며 "중소기

업인 여러분께서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 더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관련 정부 주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신산업과 신기술 도전 적극 지원 ▲규제혁신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혁신모험펀드와 재기 지원펀드를 통해 각각 도전적 창업과 재기를 돕고,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연대보증제도를 정책금융기관부터 전면 폐지하며, 중소기업 2만 개를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계획도 밝혔다. 이 총리는 "신산업은 규제 없이 (먼저)출발케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곧 가

시화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제도를 구체화하겠다"며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지방선거와 개헌 일정 등으로 사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이 올해의 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성어로 꼽은 '호시우행(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간다)'을 언급하며 "현재의 위기를 선제 투자와 경영 혁신의 기회로 삼

아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높인다면 변화의 시대에 혁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줄 News

정치·사회·산업

▲ 전국 초·중·고교의 내진보강 사업이 앞당겨진다. 교육부는 지진위험지역에 향후 7년간 1조1900억원을 투입,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2024년으로 앞당긴다.

▲ 11일부터 서울 영동3교에 40t 중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됐다.

▲ 중국 법원이 국내 게임사인 넥슨 PC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한 자국 게임사 4개 회사에 철퇴를 가했다.

▲ 삼성전자가 보안 표준 기관 인증을 통해 스마트 TV 보안성을 입증했다.

마켓·부동산

▲ 회사채 발행시장이 올 초에도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로 뜨거워질 전망이다.

▲ 오는 25일부터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제한 규제가 시작된다.

유통&라이프

▲ 올해부터 16.4%나 인상된 최저임금 부담에 편의점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 롯데그룹이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을 사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정기임원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정초부터 노사갈등... 車·조선, 올해도 험난 예고

현대중·현대차·기아차 등
임단협 둘러싸고 갈등 지속
조선·車업계, 손실 우려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글로벌 경기 침체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노사간 갈등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단체협상 갈등 분위기는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사의 경우 임단협이 해를 넘긴 것은 1967년 창사 이후 사상 처음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29일 교섭에서 2016년 5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2016년과 2017년 2년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9일 전체 조합원 9825명을 상대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표자 8804명(투표율 89.61%) 가운데 4940명(56.11%)이 반대에 부결됐다. 노조는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과 적은 성과급 때문에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는 앞서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에 합의했다. 또 성과급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단체협약 가운데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및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재교섭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 분할 3사 노조도 9일 실시한 임단협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분할 사업장인 일렉트릭, 건설기계, 로보틱스 노사는 최근 2016년과 2017년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부분은 현대중 잠정합의안을 따르고, 단체협약도 큰 틀에서 현대중 단체협약을 승계하는 형태로 합의점을 찾았다.

현대차 노사는 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교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잠정안 부결이후 세번째 교섭을 재개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2월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26일과 27일 2차례 교섭을 재개했다. 노조는 새해 들어 4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9일 오전 11시30분부터 1조 조합원들이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오후 3시30분 출근하는 2조 조합원들도 오후 8시20분부터 4시간 파업했다.

현대차그룹의 맹형인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이 해를 넘기면서 그룹 계열사들도 2017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와 현대제철 등 계열사 임금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기아차 노조는 15일까지 회사에 추가 제안을 내놓으라고 요청했으며 16일 중앙정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현대제철 노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3.5%(2835명)의 반대표가 나와 부결됐다. 현대제철 노조 조합원 4322명 가운데 3856명이 찬반투표에 참여했다. 현대제철 노사가 앞서 마련한 1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 8408원 인상, 성과급 및 일시금 1143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계 관계자는 "임단협을 둘러싸고 기업 노사간 입장차를 좁혀줄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올해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관계 악화는 결국 직원들의 피해만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훈 기자 ysw@

거래액 56조 '코인 공룡'... 회원자산 현황 분기별 공개

(월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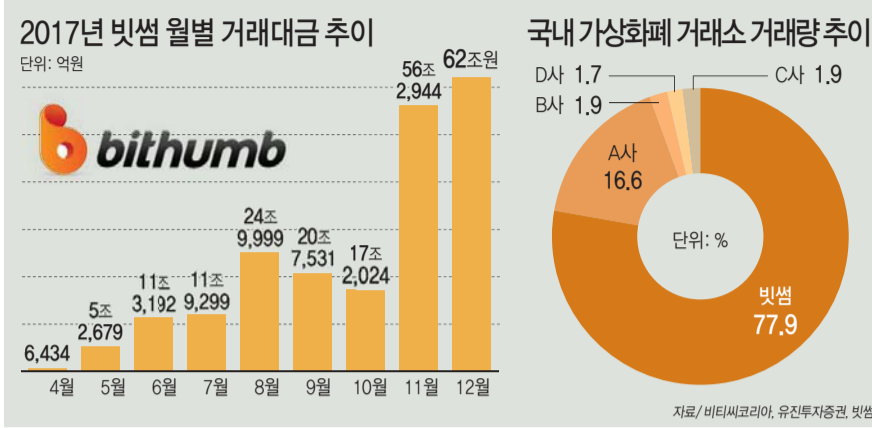
거래규모 국내 1위 '빗썸'

국내 전체 거래량의 78% 차지
해킹으로 개인정보 3만건 유출
서버 오류·해킹 보완대책 시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이 거세다.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규제 무풍지대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투자 못지 않게 어느 거래소를 선택해야 하는 지도 중요해졌다. 이에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례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장점은 압도적인 거래규모다. 10일 가상통화 거래 정보사이트인 코



인힐스에 따르면 12개 코인을 취급하는 빗썸은 지난해 11월 13일 기준 국내 가상화폐 전체 거래량의 77.9%를 차지해 단연 1위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출범했지만 아직 코인힐스 등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통계에서 빠졌다.

빗썸의 월 거래대금은 지난해 1월 약 3000억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5월

에는 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56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가상화폐 시세는 전 세계나 국내 시장 전체가 아닌 거래소별 매매로 결정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중요하다. 거래 물량이 많을 수록 시세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유지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특정 세력의 시세 조작이나 부정한 거래도 힘들어

진다.

반면 빠르게 늘어난 거래량은 단점이 되기도 했다.

빗썸 투자자들은 지난해 거래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잦은 서버 오류로 분통을 터트렸으며, 해킹 사고로 회원 개인정보 3만 건이 유출되기도 했다.

빗썸은 이 같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플랫폼과 시스템, 보안 등 서비스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도 시스템을 증설했으며, 보안의 경우 외부 공격에 대비해 모의 해킹 테스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 준수는 물론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외부 보안 컨설팅 등을 통해 금융업계 이상의 보안 수준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은 원화 자산은 회사의 운영 자산과 분리된 은행계좌에 별도로 보관하며, 암호화폐는 엄격한 보안 관리 체계 하에 운영되는 핫월렛과 콜드월렛에 보

관한다.

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회원들의 자산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빗썸은 지난해 말 전수용 전 NHN엔터테인먼트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전 대표는 일단 시스템 안정화에 집중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으로 각 국가별 거래소를 구축하는 글로벌 진출과 핀테크 영역에서의 신사업도 고민 중이다.

올해 들어서는 400명 규모의 채용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본사 전 부문에 걸쳐 100명, 고객센터 300명 등이다. 채용이 완료되면 현재 강남·광화문·부산 등 3곳인 고객센터를 한 곳 더 늘릴 예정이다.

빗썸의 자본금은 200억원 이상으로 협회의 자율 거래소 자본 요건인 20억원을 크게 웃돌며, 보험업계 최고 보상 한도의 사이버종합보험과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한 상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버블 논란' 비트코인... 韓 GDP 0.04%p 올린다

직장인 31.3% 가상화폐에 투자
1인당 평균 566만원·80% "이익"

17세기의 '튤립광풍' 처럼 '가상화폐 열풍'이 한국에 불고 있다. '비트코인' 광풍이다. 한국은 일본,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한 국가다.

신 스나이스 플로리다 대학의 이코노미스트는 "비트코인은 가상세계의 튤립 버블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여러 번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비트코인이 한국경제에 꼭 부정적일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자산가치가 16조 증가한다면 연간 실질GDP가 0.

04%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이 있다.

◆실질GDP 0.04%포인트 ↑

경제지표나 체감경기에서도 주식 등 자산가치가 오르면 소비가 증가하는 '부(富)의 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한국경제에 가져다줄 부의효과는 얼마나 될까.

하나금융투자 이미션 연구원은 10일 "비트코인의 자산가치가 16조원 증가했을 때 한계소비성향을 감안한 '부의효과'는 6400억원으로, 연간 GDP를 0.04%포인트 높인다. 특히 2017년 연말로 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2018년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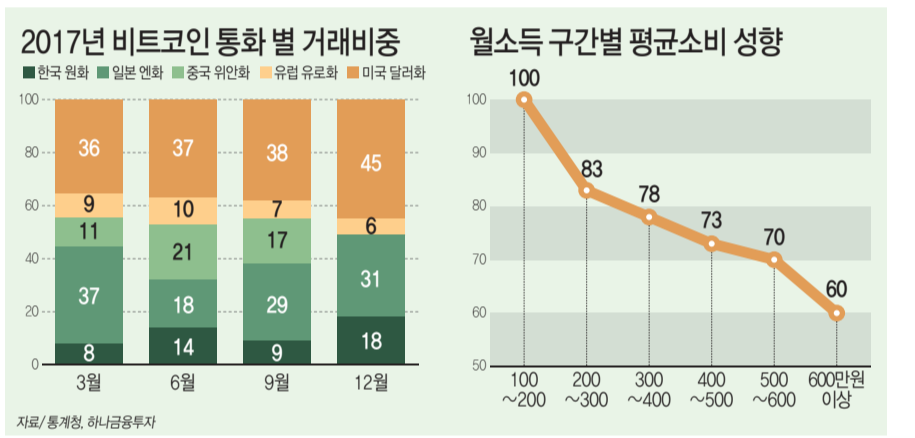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한국의 투자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가 2017년 연말까지 186만개(2017년 4~6월 중 원화 거래 투자자가 매입한 개수)가 유지된다 가정하에 분석한 결과다.

◆비트코인 투자자, 소비 나설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실제 소비와 GDP 상승으로 이어질까.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인이 직장인 9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3%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투자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2%(복수응답)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투자 액수는 1인당 평균 566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다는 사람 중 이익을 봤다고 답한 사람은 80.3%를 차지했다. 국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앱 사용자 중 10~30대 연령층 비중은 63%에 달한다.

이 연구원은 "교육비를 제외한 연령별

평균 소비성향은 20대가 가장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비트코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20~30대의 소비증가가 최근 국내 소비지표 호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재벌개혁, 기업활동 위축 아닌 경쟁력 제고 위한 것”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집중추진 대규모 재난·사고 대응 시스템 정비 강조 수치보단 국민 삶이 3만불 걸맞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신년사 주제는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다.

특히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한해 국정운영의 방점을 ‘국민’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날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나온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무술년 국정운영은 ‘국민’에 방점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분야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곳곳에서 발생한 재해와 사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출입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

를 언급하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한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는 의지

도 밝혔다.

공정경제 구축과 재벌개혁이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가 진입하게 될 ‘소득 3만불’도 수치보다는 국민들의 실제 삶이 3만불에 걸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다”면서 “정부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합의 처리 방향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의 합의 과정에서 ‘국민’이 빠진 채 이뤄진 것이어서 새 정부가 합의 파기나 재협상까진 아니더라도 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정부간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으며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그런식으로 피해자들

배제할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됐다.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 정권때 위안부합의 대가로 출연한 10억엔에 대해서도 좀더 시간을 갖고 당사자인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경제성장률 3%대 ‘자신’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대해선 3%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나가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젠 성장률 2~3%를 ‘노멀’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항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새 정부는 일자리와 소득을 중심으로 수요창출을 통한 성장, 공급 측면에선 산업 분야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도 과거엔 국가가 특정산업을 이끌었다면 이번엔 민간과 지자체가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4년 중임제가 바람직... 한미 안보공조 이상 없어

文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여소야대 국면... 야당과 소통·협력 중요 남북관계·북핵문제가 따로 갈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야당과 관계 설정 중요한데, 새해 맞아 영수회담 가능성은.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으로 개혁을 위해서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새해엔 진정성을 갖고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만론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 지방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냐’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사무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재정·조직·인사·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한다면 지방정부는 주민에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일이다.

-개헌 방식 중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있는데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가.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 아닌가 생각한다.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개헌 연기와 관련해 권력구조 개편이 합의되지 않으면 권력구조 개편만 연기할 수도 있다.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지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

-대북관계와 관련해 최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없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것이다. 지금은 시작으로,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북한에 성의를 다해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협박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미북갈등’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 것인가.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이고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도 한국과 미국은 마찬가지다. 한미 양국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응해왔다. 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해 나가면서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남북 대화가 시작됐다.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김승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요 내용

정치	·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 계획 · 국회 합의 기다리되 정부도 국민개헌안 준비 · 국회와 합의하지 못하고 정부 개헌안 발의하는 경우 중앙권력구조 개편 등 이견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개헌 추진 ·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 소통·협력 노력
외교	한일 위안부 합의 ·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공식 합의이나 잘못된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 노력 ·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치유 조치 이행 · 역사 문제와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대응할 것 ·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사죄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 · 치유금 10억 엔 처리는 시간을 두고 할머니, 일본 정부와 협의 UAE 의혹 관련 ·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에 출결이 있다면 UAE 측과 수정·보완 협의 · 외교 관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나 전정부때 양국이 비공개 합의했다면 이를 존중할 필요 있어
북핵 및 남북관계	·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함께 해결 ·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 · 북한이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제재·압박 강화 · 여건 갖춰지면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 임할 것 ·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긍정적
경제	·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추진 ·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게 삶의 질 개선 ·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할 것 · 최저임금 상승이 일시적으로 고용 줄일 가능성 있지만 정착되며 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릴 것
사회·문화	·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 · 20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실행 ·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

국민의당 통합 여전히 ‘평행선’... 분당으로 갈라서나

14일 의원총회 예정됐지만 강대강 대립 지속

국민의당 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과 반대파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는 14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지만 양측이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끝내 분당 수순을 밟게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우선 통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안철수 대표는 10일에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에 찬성하는) 전 당원투표 결과가 발표되며 당원의 뜻이 모였고, 여론조사를 통해 시너지효과 등도 조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과로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들과 소통 노력을 하겠다”면서 “원래 계획한 통합일정을 늦추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개혁 정당,

젊은 정당, 국민을 통합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대표는 손학규·김한길 전 의원 등 중립지대 의원들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손 상임고문과 김 전 대표 등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상황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곧 만나 여러 의논을 하겠다”고 말했다.

찬성과측도 통합추진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며 안 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통합추진협의체는 지난 8일 2차 공개회의를 열고 통합신당 강경정책과 당헌당규 제정을 위한 소위 구성과 신당의 당명을 이달 중 국민참여공모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11일에는 민생 현장을 방문해 자영업자들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찬성과 일각에서는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박주현·장정숙·이상돈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 의원들을 향해 의원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통합 반대파들의 반발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통합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합당 반대’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 조배숙 의원은 “바른정당은 껌데기만 남았다. 이런 정당과의 합당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적폐를 쌓아온 이들과 한순간 한 정당에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바른정당의 계속되는 탈당 사태로 유승민 대표 리더십과 합당이 진퇴양난”이라며 “안 대표 역시 최근 이탈로 중재 의원들의 선(先) 대표직 사퇴, 후(後) 정당대회 제안을 놓고 대표실 백드롭처럼 진퇴양난이 됐다”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100조 들인 출산정책 실패... 관건은 “아이 키우고 싶은 사회”

(10년간)

>> 1면 ‘출생률 목표제시보다...’서 계속

2020년부터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 계획
통상임금 40%에서 50%로 인상

특히, 이중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2배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 지급률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에 따라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를 기치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되고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위해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 또한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이 행복·부모 안심 돌봄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정부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질벽 해소 학교 안·밖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및 가정돌봄서비스 확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정규 수업 종료 후 학원 등 사교육과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전 학년을 확대하고 체육·독서·놀이 활동 등 방과후 학교를 초등돌봄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의 각 서비스를 총괄하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 학교

안·밖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및 가정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아이돌보미를 제대로 된 일자리로 확립해 영아기 종일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올 1/4분기 안에 발표하고 하반기 중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지만 이제는 출산장려대책을 넘어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희망퇴직 카드까지 꺼낸 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수익성 감소
신한카드 2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
디지털금융 전환·조직개편 잇따라

카드업계가 연초부터 금리 인상,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를 맞이하고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업권 전반에 불어닥친 감원 한파라지만 카드업계가 체감하는 위기수준은 남다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당장 올해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6월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연내 한 차례 더 수수료 인하가 시행될 전망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의 일자리 감소 불안을 잠재웠다. 반면 이에 따른 카드업계의 수익성 감소 우려는 더욱 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15년부터 인력을 줄이고 있다”며 “디지털 도입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스템 개편이 함께 진행되면서 올해 구조조정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카드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10년간

(카드사 직원 수 추이)

구분	연도	직원 수
신한카드	2015년 6월 말	2765명
	2017년 6월 말	2621명
KB국민카드	2015년 6월 말	1438명
	2017년 6월 말	1530명
카드사	2015년 6월 말	1만1045명
	2017년 6월 말	1만829명

/자료=금융감독원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자에게 기본 퇴직금 외 24개월치 기본급과 연령 및 직급에 따른 최대 30개월치 기본급을 지급한다. 신한카드의 이번 희망퇴직은 지난 2015년 12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보통 마지막 날 신청이 몰려 아직 정확한(희망퇴직)신청자 규모를 파악하긴 어렵다”며 “모래시계형’ 조직구조에서 벗어나 인력 적체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막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KB국민카드 역시 내부적으로 분사 이후 최초로 올해 희망퇴직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사가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으로 대상자 및 희망퇴직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희망퇴직이 실시될 경우 KB국민카드는 지난 2011년 은행에서 분사된 뒤 첫 인력감축이 진행됐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지원자에 한해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의논하고 있다”며 “노사가 희망퇴직의 방향성에는 동의했지만 실무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타사는 희망퇴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업계 상위권의 카드사들이 이처럼 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 구조조정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신한카드 외 삼성카드와 하나카드가 지난 2015년 희망퇴직을 실시한 이후 이듬해 롯데카드와 BC카드가 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른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카드사 8곳의 임직원 수는 1만829명으로 2년 전인 지난 2015년 6월 말 1만1045명 대비 216명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는 업계의 또 다른 ‘악재’라며 “이에 카드사들이 희망퇴직 외 디지털 금융 강화 및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인력을 줄이면서 경영 비용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0만명이 넘는 카카오톡 고객을 기반으로 확장해온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핀테크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이날 비금융권 최초 자체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기존 은행계 카드사가 독점해온 체크카드 시장에 카카오페이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카드사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이봉준 기자 b35sea@



원/달러 환율 나홀로 연속 상승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증가 기조로 올해 처음 1070원 선에 올라섰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4.8원 오른 1071.9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카드포인트, 현금으로 인출 가능

1만원 이하는 출금계좌로 입금
카드사 해외서비스 수수료 인하

앞으로는 카드 포인트를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간 불합리했던 카드 해외 이용수수료의 부과체계가 개선되며, 리볼빙 서비스의 해지도 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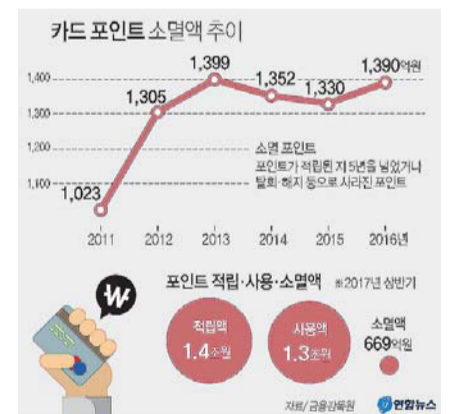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을 개정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는 방식이다.

카드 해지시 ATM에서 찾을 수 없는 1만 포인트 이하 자투리는 아직 남은 카드 대금으로 납부하거나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원 넘게 쌓이고 있다. 연간 적립액은 지난 2011년 2조 1935억원에서 2016년 2조 6885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상반기도 1조 4256억원이 쌓였다.

그러나 포인트를 사용하기 어려워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도 매년 1000억원을 웃돈다.



카드사의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소비자는 해외 카드이용금액에 대해 비자 등 국제 브랜드사에 수수료(약 1.0%)와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 수수료(약 0.2%)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카드사는 이용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까지 더해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2%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계산할 때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제외한다.

카드 리볼빙(결제금액 일부를 미루는 것) 서비스는 안내를 강화하고 간편해지 제도를 도입한다. 리볼빙은 연체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금리가 연 18% 안팎으로 높아 상환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소액결제일수록 카드수수료 낮아진다

금융위 “7월부터 추가 인하”

올해 7월부터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 때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7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시장의 뱅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를 정책제에서 정률제 등으로 반영해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향후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제주 편의점, 슈퍼 등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조정 등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에 대해서는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2인자 황각규 부회장 승진... 50대 CEO 전진배치



이봉철·김현수 각각 사장 승진
20여개 주력 계열사 인사 단행
전문성 갖춘 '미래 인재' 초점
첫 여성CEO·여성 임원 30명

롯데그룹이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을 사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정기임원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롯데지주, 롯데쇼핑 등 유통·식품·서비스·금융 부문 등 20여개 주력 계열사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원인사를 확정했다.

오는 11일에도 10여개사 임원인사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100여 명의 신규 임원이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탄생하고 그룹 내 여성임원도 3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롯데의 2018년 정기임원인사는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약속인 '뉴 롯데'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진용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적·성과 중심의 승진

롯데의 올해 정기임원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의 부회장 승진이다.

그는 롯데의 신규사업, 인수합병(M&A) 등을 주도하면서 그룹의 성장과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그룹의 경영관리와 쇄신작업도 끝냈다. 지난해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며 롯데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봉철
롯데지주 사장



이홍열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민영기
롯데제과 대표이사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이광영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



박송완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김경호
롯데닷컴 대표이사



선우영
롭스 대표

출범에 기여한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도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사장은 1986년 입사해 정책본부 재무팀장,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2014년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맡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홍열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도 사장으로 승진했다. 1983년 호남석유화학으로 입사한 이 대표는 대산MMA 대표이사 등을 거쳐 2017년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조직의 안정화와 성과 창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도 사장이 됐다. 김 사장은 1984년 입사해 롯데쇼핑의 CFO직을 수행했다. 2014년부터 롯데손해보험 대표를 맡았다. 이후

탁월한 경영감각으로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세대교체 가속화

롯데는 경영권 분쟁 여파로 2년 만에 단행한 지난해 정기임원인사에서 105명의 신규 임원을 배출하면서 10명의 50대 CEO를 주요 계열사에 전진배치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이런 기조가 그대로 이어졌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화학 계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 실적이 부진했는데도 차세대 CEO 후보군으로 꼽히는 신규 임원을 100명 넘게 발탁한 것이 그 방증이다.

50대 CEO를 주요 계열사에 전진배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조현철 롯데알미늄 신입 대표이사과 민영기 롯데제과 신입 대표이사, 김경

호 롯데닷컴 신입 대표이사 등이 모두 50대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50대 CEO는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재계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철권통치하던 시절 롯데는 주요 재벌그룹 중 CEO들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그룹에 속했으나 신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급속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임원 대거 승진

이번 인사에서는 선우영 롯데하이마트 온라인부문장(상무)이 롯데롭스(LOHB's)의 대표로 선임돼 '롯데그룹 최초 여성 CEO'가 탄생했다. 성인재 발굴 및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2020년까지 반드시 여성 CEO를 배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선우영 신입대표 내정자는 롯데하이

마트에서 생활가전 상품관리, 온라인부문 업무 등을 수행하며 오픈채널 사업 성장에 기여했다.

향후 여성 CEO로서의 섬세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롱스의 상품 소싱과 온라인 사업을 이끌며, 고객 니즈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여성임원 가운데 김현옥 롯데지주 준법경영팀장이 전무로 승진했다. 인터넷세점 사업을 담당하는 전혜진 상무보, 그룹의 A.I. 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김혜영 상무보도 한 단계 승진했다.

여성으로는 최진아 롯데제과 글로벌 마케팅장, 송종은 롯데알미늄 햄버거 판촉팀장이 새롭게 임원이 됐다.

롯데제과의 벨기에 길리안 법인장인 미에게 칼레바우트 상무보는 상무로 승진했다.

/박인용 기자 parkyu7854@metroseoul.co.kr

오늘 '애플' 상대 손해소송 개시... 2월에 36만명 추가 예정

참가자 150명, 1인당 220만원 청구
법무법인 한누리·휘명 참가자 모집

국내에서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이 시작된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애플코리아와 애플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10일 밝혔다.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국내에서 시작되는 첫 집단소송이다.

애플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노후를 이유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키는 업데이트를 사용자 동의 없이 단행했다. 세계 각지 아이폰 사용자들은 노후 배터리를 교체하면 될 일이었지만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했다고 반발했다.

운영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타사 제품으로 옮기기 어려운 아이폰 특성을 이용했다는 것.

애플은 배터리 교체 비용 50달러 할인이라는 보상을 내놨지만, 아이폰



배터리 교체 접수를 위해 대기 중인 아이폰 사용자들.

/노수아 인턴기자

배터리 원가가 1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배터리 판매 프로모션을 내놨다는 역풍을 맞았다. 때문에 보상안 발표 이후에도 세계 각지에서 집단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법무법인 한누리과 휘명이 각각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하

고 나섰다. 하지만 첫 집단소송은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제기하게 됐다. 소송 참가자는 150명이며 1인당 2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차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에서는 애플의 업데이트로 발

생한 아이폰 성능저하로 인해 사용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아이폰6, 아이폰6S 등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은 업데이트로 인해 송금 실패, 애플리케이션 중지, 사진 촬영·음악 중단 등의 피해를 봤다고 호소한다.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성능저하로 인해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도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해의 재판에서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중요하게 다뤄진다.

의도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애플은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사안이 주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법상 피해자의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 때문인지, 과실 때문인지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도덕적 책임이 생기고 사회적 비난여론도 거세져 판결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해 애플은 "의도적으로 제품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해해 기기 업그레이드를 유도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애플의 해명에도 집단소송 참가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배터리 게이트 초기 법무법인 한누리가 모집한 국내 집단소송 참가자는 3만명 수준이었지만 애플의 발표 직후 15만명 늘어 18만명이 됐다. 현재는 당시의 두 배인 36만명에 근접하는 상황이다. 한누리는 11일까지 소송 희망자를 받고 이달 중 방식을 확정해 구체적인 위임 절차를 마친 뒤 2월 초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법무법인 휘명도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한누리 조계창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증하는지가 소송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다국적 기업인 애플이 소비자에게 보여준 무성의한 태도를 시정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LG전자 “AI 게임 체인지 위해 구글 등과 개방적 협력”

박일평 CTO 기자간담회

“소비자는 실질적 가치가 제일 중요”

어떤 기업과도 파트너십 가능 내비처

씽큐, 전자산업서 게임 체인저 될 것

박일평 LG전자 최고기술자(CTO) 사장(사진)은 “인공지능(AI) 분야 전략은 개방과 공조”라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 기업들과 협력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사장은 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18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상의 판이 급속도로 바뀌고 너무 많이 복잡해져서 (소비자가) 제품을 처음 출시했을 때 샀는데도 밸류(가치)가 푹 떨어진다”면서 “이제는 회사 단독으로 가장 좋은 가치를 제공해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이에 맞춰 최적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것을 제공하고, 우리

자체의 플랫폼도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이 같은 전략 아래 최근 론칭한 AI의 글로벌 인공지능 브랜드 ‘씽큐(ThinQ)’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씽큐는 LG전자만의 차별화된 ▲세계 각지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축적해온 제품 사용패턴 데이터 ▲폭넓은 제품·서비스 포트폴리오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들과 맺은 파트너십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구글, 아마존, 네이버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인공지능 TV ‘LG 올레드 TV 씽큐’, 인공지능 스피커 ‘씽큐 스피커’, 네이버와 협력해 인공지능 스피커 ‘씽큐 허브’ 등을 내놓았다.

박 사장은 어떤 기업과도 협력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파트너십 구축에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LG전자는 기기 관련 영역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제품 차별화를 시도하는 등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영역에서 더 잘하고, 파트너십을 늘려야할 영역

이 많아진다면 그에 따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봇 사업에 대해서는 그는 “미래 콘셉트로 3개를 선보였는데 우선 서비스 로봇 쪽에 집중하고 다른 분야 로봇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서빙 로봇, 포터 로봇, 쇼핑카트 로봇 등 신규 로봇 3종을 선보였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과 스타필드 하남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호텔, 대형 슈퍼마켓 등 다양한 영역으로 로봇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사업확장을 진행 중인 전자사업에 대해 “자율주행은 연구하고 있다”며 “AI 같은 기술을 융복합해 자율주행, 미래 커넥티드카 시장에 맞는 기술 다양하게 만들어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사람이 제품과 서비스를 배우던 것과 달리,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가 사람을 배우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LG전자는 씽큐가 소프트웨어 혁신을 통해 전자산업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un@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왼쪽)이 9일(현지 시간) 'CES 2018'의 삼성전자 부스에서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과 함께 IoT기술과 전장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콕핏'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SK텔레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동통신도 中 추격 쫓겨 인프라 사업자 규제 협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4세대 이동통신(4G) 후반기에 오면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사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8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참관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 좋아했지만, 우리에게 반도체를 사간 회사들은 그 반도체로 AI, 데이터 등을 하면서 우리와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앞서가는 이유에 대해 박 사장은 규제를 꼽았다. 그는 “중국의 규제가 적은 반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만 해도 관련된 정부부처가 상당히 많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협력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 사업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SK텔레콤은 인프라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며 “혁신을 따라잡는 과정이 있다면 인프라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한국에 5G 생태계를 조성해 수많은 기술기업이 우리 인프라를 활용하고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2019년 상용화될 5G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비즈니스모델(BM)은 자율주행과 연결된 ‘텔레매틱스’와 ‘미디어’라고 답했다. 그는 “5G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것은 텔레매틱스와 미디어”라며 “(이번 출장에서) 히어, 엔비디아도 만나고 미디어 쪽으로도 기술 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부스를 가장 먼저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는 “전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곳”이라며 “(삼성전자는)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는 기업”이라고 치켜세웠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車 안에서 집 안 냉장고 식재료 확인에 레시피까지

삼성전자-하만 ‘디지털 콕핏’ 체험

디지털 전장제품으로 구성된 운전석·조수석

AI 비서 ‘빅스비’와 IoT ‘스마트싱스’ 적용

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18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만과 공동 개발한 차량용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을 보고 체험하려는 참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디지털 콕핏은 디지털 전장제품으로만 구성된 운전석과 조수석 전방 영역을 말한다.

삼성전자 이날 공개한 디지털 콕핏은 삼성전자 인공지능(AI) 비서인 ‘빅스비’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용 클라우드 ‘스마트싱스(SmartThings)’가 적용된 터치는 물론 음성만으로 간편하게 차 안에 있는 에어컨·오디오 음량·조명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서도 집 안의 냉장고, 청소기 등 IoT 기기를 간단히 제어할 수 있다.

기자도 운전석과 VR 체험기를 통해 디지털 콕핏 서비스를 체험해 봤다.

먼저 VR 체험기 버튼을 누르자 시동이 걸리고 운전자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시동이 걸린 이후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는 디지털 콕핏인 디스플레이 3개(기존 차량의 대쉬보드)에 불이 들어왔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갤럭시의 앱을 사용하듯 버튼을 누르면 내이게이션, 에어컨, 폰 기능 등으로 연결됐다. 또 디스플레이 색도 운전자가 기분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해 사용할 수 있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에서 '디지털 콕핏'을 체험해 봤다.

/정은미 기자



VR 체험 후 오른 운전석에서는 디지털 콕핏의 디스플레이가 눈에 명확히 들어왔다. 디스플레이는 12.3형 OLED, 12.4형 플렉시블OLED, 28형 QLED로 이뤄졌다.

중앙과 조수석에 걸쳐 있는 28형 QLED 디스플레이는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돼 있다. 운전자 쪽으로는 내비게이션 등의 운전 정보를 보여준다. 조수석 쪽으로는 영상물 감상과 인터넷 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을 위해서라는 게 전 시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차량에는 룸미러와 사이드미러가 없었다. 대신 룸미러 위치에 ‘미러 대체 비전 시스템(Mirror Replacement Vision System)’이 사이드미

러와 백미러 역할을 했다. 차선 변경시 원하는 방향의 시야가 확대됐다.

조수석에서는 집안의 IoT 냉장고와 연결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차 안에서도 집안 냉장고의 식재료를 확인할 수도 있고, 레시피를 검색할 수도 있었다. 전시장 내 차량에서는 저장된 냉장고 영상이 나와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삼성전자 전장사업팀장 박종환 부사장은 “디지털 콕핏은 삼성전자와 하만의 노하우가 집약된 전장 기술 협력의 첫 결실”이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와 하만은 커넥티드카 사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두산 박지원 부회장, 디지털 혁신 위해 CES 참관

글로벌 기술동향 파악... 新사업 아이디어 모색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이 디지털 혁신을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18’을 참관한다.

10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그룹 최고 기술책임자(CTO)인 이현순 부회장과 최고디지털혁신(CDO) 형원준 사장, 동현수 ㈜두산 사업부문 사장,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스킷 박 두산밥캣 사장 등 최고 경영진과 함께 CES를 방문한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글로벌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해 그룹의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혁신’에 접목할 아이디어를 찾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해 9월 열린 '2017 로보월드 전시회'에서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두산은 지난해 12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그룹의 디지털혁신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고

디지털혁신(CDO)’ 조직을 신설하고 SAP코리아 대표이사 출신의 형원준 사장을 영입한 바 있다.

박 부회장을 비롯한 두산 최고 경영진은 CES에서 주요 업체들의 전시관을 둘러보는 한편 현지 전문가들과 별도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실리콘밸리의 세계적 액셀러레이터(창업육성업체)인 알케미스트 최고경영자(CEO)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디지털 전문가 등과 함께 스마트시티, 로보틱스와 같은 그룹 사업과 디지털 기술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

계열사별 디지털혁신 과정을 보면 두산중공업은 발전소 원격 관리 서비스 센터(RMSC)를 개설해 발전소 운영 정보를 빅데이터로 관리한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한국과 미국의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장비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두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협동로봇 사업에 지난해 말 진출했다.

/양성운 기자 ysw@

1초에 1기가... “차량 내 초고속 데이터 처리, 시스코와 맞손”

현대·기아차 커넥티드카에 탑재 ‘CES 2018’서 핵심기술 등 공개 2019년 협업 첫 차량 시장에 선보여 차량 네트워크 고속화·효율화 집중



현재 차량 내부에 적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케이블(좌)과 현대·기아차가 2019년 이후 커넥티드 카에 적용할 예정인 네트워크 케이블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기아자동차의 커넥티드카에 초당 1기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깔린다. 현대·기아차는 9일(현지시간) 개막한 ‘CES 2018’에서 시스코와 공동 개발 중인 ‘차량 내 네트워크(인 카 네트워크, In Car Network)’의 4대 핵심 기술 및 사양을 공개했다. 시스코는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기업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현대·기아차와 세계 최고 기술력이 결집된 커넥티드 카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양사는 기술 협력 고도화와 실차 검증 테스트 등을 거쳐 2019년 이후 출시될 현대·기아차 신차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커넥티드 카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인 카 네트워크는 차량 내 데이터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각종 커넥티드 카

기술 및 서비스를 차량이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본적인 토대다. 현대·기아차와 시스코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전 세계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하게 될 커넥티드 카 시대를 선도하는 마켓 리더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기아차와 시스코가 공동개발 중인 차량 네트워크의 4대 핵심기술이자 특징은 ▲이더넷 ▲통합 제어 ▲고품질 네

트워크 ▲차량 최적화 보안이다. 커넥티드카는 차량 자체 생산 데이터, 외부 송수신 데이터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현재 차량에 쓰이는 CAN(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은 데이터 처리 용량이 125~500kbps에 불과해 사실상 미래차에 적용할 수가 없다. bps는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말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시스코 동맹은 최소 100Mbps에서 최대 1G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차량용 이더넷 통신을 개발하고 있다. 이더넷을 사용하면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고, 차량 내 전자 제어기기를 무리 없이 늘릴 수 있다. 아울러 현재 CAN 통신의 경우 각 차량 부품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장치별 제어장치를 두지만, 양사는 모든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소프트웨어를 통해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시도한다. 양사는 고품질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차량 내 장치별로 발생 데이터 전송량을 조절, 전송 속도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QoS(서비스 품질) 기술도 새로 적용할 계획이다. 외부의 비정상적 차량 네트워크 침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첨단 통합 네트워크 보안 기술도 양사가 개발하는 차량 네트워크의 강점이다. 황승호 현대차그룹 차량지능화사업부 부사장은 “미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현대·기아차는 세계 최고의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꾀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시스코와는 가장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차량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커넥티드카 신기술 혁신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며 “그 첫 번째 단계로 2019년 양사 협업 결과가 적용된 첫 차량이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스코 성장 전략 담당 루바 보르노 부사장은 “양사는 차량 네트워크의 고속화, 효율화에 역량을 집중해 차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 스마트TV, 세계 최고 보안 인증 획득

VOD 결제시스템에 사용자 우려 전라인 자사 보안기술 ‘녹스’ 적용



삼성전자가 보안 표준 기관 인증을 통해 스마트 TV 보안성을 입증했다. 기존 TV에 인터넷 기능을 더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TV는 PC에 이어 새로운 해킹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영화나 VOD 등의 구입을 위한 결제 시스템이 탑재돼 사용자들의 우려도 커졌다. 10일 삼성전자가 따르면 이 회사 스마트 TV는 3년 연속으로 TV업계 유일 국제공통평가기준 CC(Common Criteria)로부터 보안성 인증을 받는데 이어 지불 결제 서비스 관련 보안 인증인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도 획득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2015년형 이후에 생산된 스마트 TV 전 라인업에 자사 보안 기술인 녹스

취 글로벌 안전 인증기관인 UL로부터 스마트 TV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 보안에 대해 PCI DSS 인증을 획득했다. PCI DSS 인증은 비자·마스터카드 등 5개 글로벌 카드사가 카드 회원과 관련한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일관된 정보보안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공동 개발한 국제보안표준규격으로, 신용카드사, 지급결제(PG)사, 카드가맹점 등이 주요 인증 대상이다. 삼성 스마트 TV에 탑재된 T커머스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 ‘체크아웃’은 녹스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시큐어 키보드’와 ‘시큐어 숫자키’ 등을 지원해 신용카드 정보를 암호화하고 기기 안에 별도 저장되지 않게끔 해서 보안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보안 전문 기업 맥아피와 협력해 TV 전용 백신 소프트웨어인 ‘맥아피 시큐리티 포 TV’를 공동 개발해 삼성 스마트 TV에 탑재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채권단, 자구 이행 촉구

사측, 노조에 투쟁·파업 중단 요청 추진을 위한 해외 영업망 정비 등을 통해 약 525억원 수준의 자구노력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개선금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노조 집행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간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는 “노조 집행부는 여전히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회사와 지역경제의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는 무책임한 투쟁과 파업을 통해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을 피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며, 10일부터 근무조별 파업과 함께 24일에는 상경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회사의 생존 가능성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채권단과 시장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12월 급여에 이어 1월 정기상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유동성이 바닥나고 1월 말 도래하는 막대한 차입금 상환과 계속되는 적자로 3중고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즉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채권단과 사장의 신뢰를 얻어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비롯한 전 구성원의 희생과 노력이 절실한 상태다. 이에 대해 “회사의 중심인 노조가 경영 위기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투쟁과 파업을 중단하고 노사가 함께 전 구성원의 생존과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회사는 전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해 경영정상화에 최선의 노력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대한항공 평창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 래핑 항공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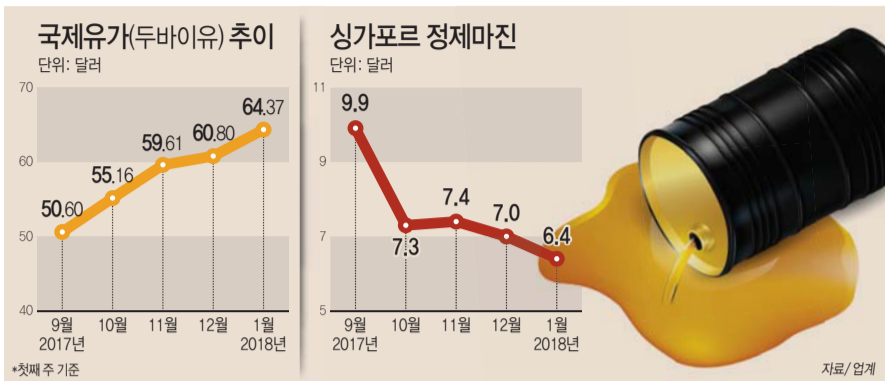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 래핑한 대한항공 A330-200 항공기.

대한항공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적극 알리기 위해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를 래핑한 항공기를 운영한다. 1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홍보 항공기는 A330-200 기종 1대로 지난 2일부터 6일 동안 래핑 작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8일부터 패럴림픽 폐막일인 3월 18일까지 전세계 하늘을 누비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홍보사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7월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을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 엠블럼을 래핑한 항공기 10대를 추가해 총 12대의 홍보 항공기를 운영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로서 지난달에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객실, 운항, 정비, 공항, 기내식 등 다양한

직군의 대한항공 임직원이 동계올림픽 응원 메시지 릴레이 이벤트를 펼쳤다. 또 오는 18일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대한항공 탑승수속 카운터에 수호랑 반다비 인형을 비치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포토존’을 마련해 내외국인 승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 27일까지 인천공항과 동계올림픽의 관문 공항인 양양공항을 연결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를 임시 운항한다. 환승전용 내항기는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국제선 승객을 위한 국내선 연결 항공편으로 대회 일정에 따라 다양한 스케줄로 운항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천정부지 유가에 쪼그라든 정제마진... 정유업계 긴장

국제유가 70달러 인상 전망 속 정제마진 9달러서 6달러로 하락
중석유제품 수출규제 완화 영향



지난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정유업계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국제유가에 긴장하고 있다.

10일 국제유가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북해산 브렌트유, 중동 두바이유 등 3대 유종 가격이 모두 뛰어올랐다 한 국석유공사에 따르면 WTI는 전일 대비 배럴당 1.23% 오른 62.96달러를 기록했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1.04% 상승한 68.82달러에 마감했다. 국내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0.72% 상승해 65.81달러를 기록했다.

당초 업계는 국제유가가 60달러에서 고점을 찍은 뒤 다시 하락해 연말까지 50~60달러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60달러를 훌쩍 뛰어넘자 7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국제유가 변동에 정유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유

가 상승이 정유업계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점진적인 유가 인상은 정유사 수익에 긍정적인 요소다. 중동에서 원유를 구입하더라도 한국으로 이송하고 정제 과정을 거친 뒤 일선 주유소에 전달되기 까지 4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구입 시기와 도입 시기 사이 시세 차이가 발생한다. 가령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일 때 원유를 사들이면 한국에 들어올 때는 배럴당 55달러의 가치를 인정받는 셈이다. 이를 재고평가이익이라 부른다.

그러나 현재 정유사들의 수익은 감소세에 있다.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경유·등유·나프타 등으로 만들었을 때 생기는 수익을 정제마진이라 부른다. 재고평가 이익이 정유사 수익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정제마진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최근 정제마진이 눈에 띄는 하락을 보였다.

치솟는 국제유가와 달리 정제마진은 지속 하락했다. 아시아로 수입되는 원유가 거래되는 싱가포르 시장의 복합 정제마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첫 주 기준 배럴당 9.9달러에서 7.3달러

로, 7.4달러, 7달러, 6.4달러로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정제마진 1달러가 떨어질 때 정유사의 분기당 영업이익 2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에 각 사별 영업이익이 2000억원 가량 줄어든 셈이다.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마진 손익분기점은 4~5달러 사이로 알려졌다. 아직 적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정제마진이 추가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제마진이 줄어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를 완화한 영향 탓이다. 중국발 공급증가가 현실화될 경우 정제마진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미국 정유사들의 공장 가동 확대도 정제마진 축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정유사들은 지난해 8월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설비 보수에 나섰기 때문에 매년 2월 진행하던 정기보수가 올해엔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동 산유국들이 아시아에 원유를 판매하는 판매가격(OSP)도 3년 만에 최고치로 높아졌다. 국제유가에 OSP를

더한 금액을 지불해야 원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OSP를 배럴당 1달러 올려 1.7달러로 책정했고 아랍에미리트(UAE)는 0.28달러, 카타르는 5.65달러 등을 인상했다. 겨울이 된 아시아에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이유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도입하는 유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내 도입가가 더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재고평가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가격 탓에 수요 감소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승용차 대신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비율이 늘어 제품 판매가 줄어드는 것. 이는 다시 정유사 마진인 정제마진을 줄여들게 만든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회조와 미국 한파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인상한 측면이 있고 국제유가 인상이 석유제품 수요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제마진이 줄어들겠지만 큰 폭은 아닐 것으로 기대한다. 시장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렉스턴 스포츠' 출시기념 드라이빙 스쿨

쌍용차, 가족고객 대상 교육 실시



쌍용자동차가 렉스턴 스포츠 출시를 기념해 춘천에서 가족 고객들을 대상으로 드라이빙 스쿨을 개최한다.

10일 쌍용차에 따르면 렉스턴 스포츠 출시 기념 '스노 드라이빙 스쿨'은 오는 27일 춘천 소남이섬에서 가족고객 200개 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신차 렉스턴 스포츠와 G4 렉스턴을 활용하여 겨울철 오프로드를 포함한 모든 주행 환경에서의 주행 실력 향상을 위한 드라이빙 교육을 실시한다.

자연지형과 구조물을 활용한 ▲급 경사로 ▲모굴 ▲사면 ▲언덕 경사로 ▲변피 ▲슬러럼 등 오프로드 코스 드라이빙 교육과 더불어 ▲열기구 체험 ▲RC카 체험 ▲척고 방향제 만들기 ▲렉스턴 스포츠 페이퍼토이 만들기 체험 등 가족 참가

자들을 위해 다채롭고 이색적인 시설 및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렉스턴 스포츠 출시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스노 드라이빙 스쿨' 참가 신청은 18일까지 쌍용차 공식 페이스북을 방문,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추첨 결과는 19일 발표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양성운 기자 ysw@

"U+ 우리집 AI로 방탈출 게임하세요"

LG유플러스, 게임 체험 이벤트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이 'U+우리집 AI'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도록 'U+우리집 AI 방탈출 게임 이벤트'를 여의도IFC몰에 이어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아트리움 광장에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탈출 게임이란 특정 공간에서 숨겨진 도구와 힌트 등을 찾아내 제한된 시간 안에 밖으로 나오는 게임이다. 이번 이벤트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LG유플러스는 U+우리집AI의 지식검색, 외국어 번역, 콘텐츠검색, 홈IoT 동시 실행 등 주요 기능 체험을 통해 미션 완료에 필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4개의 테마 별로 최단시간에 미션을 완료한 참가 팀에게는 U+우리집AI 스피커 '프렌즈+'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른 참여 팀들에게도 네이버 캐릭터 '라인프렌즈' 열쇠고리를 증정한다.

이 밖에도 추첨을 통해 프렌즈+ 스피커(10명)와 라인프렌즈 스티커(소진 시까

지)를 제공하는 SNS인증샷 이벤트, U+우리집AI 가입상담 시 라인프렌즈 솜사탕 제공 이벤트, U+우리집AI 스피커를 이용한 마술쇼 등을 열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평창 찾은 황창규, KTX 'LTE-R' 점검

<KT 회장>

<철도통합무선망>

KT, 올림픽 준비 직원 격려행사



황창규 KT 회장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여념이 없는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KT의 대학생 서포터스 '모바일 퓨처리스트(MF)' 100여명도 평창을 방문해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KT는 황창규 회장이 10일 오전 강원도 평창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중계망 및 5G 시범망을 준비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KT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 운영을 맡고 있으며, 평창 및 강릉 일대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평창 방문에서 황창규 회장은 방한 효과가 높은 '발열조끼'를 평창, 강릉 등지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KT 및 그룹사, 협력사 직원 900여명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제공한 발열조끼는 최고 18시간 발열 효과가 지속된다.

10일 오전 강원도 평창 스키점프센터 앞에서 황창규 KT (앞줄 왼쪽) 회장이 현장직원에게 '발열조끼'를 입혀주고 있다. /KT

황창규 회장은 평창에서 직원 격려행사 참석에 앞서 서울에서 평창(진부)까지 이동하며 KTX를 이용했다. 서울-강릉 사이 KTX에서 네트워크 품질 점검과 함께 KT에 의해 원주-강릉 구간에 적용된 철도통합무선망(LTE-R)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KT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에 앞서 개통한 KTX에서 원활한 무선서비스 제공

을 위해 인천공항-강릉 KTX 구간에 약 700개의 기지국, 중계기 등을 신설 및 증설했다. LTE 기술에 기반한 'LTE-R(Railway)'은 열차-열차, 열차-지상(역사), 지상-지상을 무선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다. 원주-강릉 구간에 구축된 LTE-R는 가로채기, 우선권부여 등 MCPTT 무전단말 서비스를 국제표준에 기반해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한화 L&C, 북미 인테리어 스톤시장 공략 나선다

주방·욕실 전시회 'KBIS' 참가



한화L&C가 북미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 'KBIS 2018'에서 인테리어 스톤 신제품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북미 시장 공략을 시작했다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현지시간) 사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KBIS는 매년 600여개 이상의 건축자재 관련 업체 및 12만명 이상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 주방·욕실 전시회다.

9번째 참가하고 있는 한화L&C는 인테리어 표면 마감재 칸스톤 9종 및 인조 대리석 하네스 100여종을 선보였다. 그중 작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추가 구축한 제2생산라인에서 제작된 칸스톤 제품은 로봇 신기술이 적용된 유광, 무광, 반광

등 다양한 광택으로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99% 순도의 석영을 사용한 칸스톤은 천연석 그대로를 사용한 듯한 패턴과 색상과 뛰어난 경도로 뛰어난 표면 긁힘과 파손의 위험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또 수분 흡수율이 낮아 세균번식 예방과 음식

물 얼룩이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화이트와 라이트 톤으로 구성된 부티크 컬렉션은 다른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과도 어울려 큰 인기를 끌었다. 색상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자연스러운 공간 연출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현재 기자 ihj@

‘소형 제릴라점포’로 수도권 공략... 총자산 6년만에 3배

**2018 따뜻한 금융
행복한 한국**

7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끝)

**지주사 회장직-은행장직 분리
디지털·글로벌 금융 강화 가속**



JB금융지주 여의도 사옥. /JB금융그룹

JB금융지주 김한 회장이 집권 6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1·2대 회장을 지내는 동안 지속적인 인수합병(M&A)과 소매금융, 수도권 진출 등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JB금융은 지난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지방금융지주를 강타했던 ‘CEO(최고경영자) 리스크’ 없이 고객과의 신뢰를 쌓았다. 올해도 강점인 소매금융을 비롯해 디지털·글로벌 금융까지 박차를 가해 ‘강소 금융지주’로 부상할 전망이다.

◆소매금융으로 작지만 강하게... 실적 高高
김 회장은 2013년 JB금융지주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뒤 ‘작지만 강한 금융지주’를 목표로 외형 확장과 동시에 서민금융(소매금융)을 쟁했다.

외형 확장은 M&A를 이용했다. 김 회장은 취임 후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등을 인수하며 공격적으로 그룹의 덩치를 키웠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JB금융의 총자산

은 2013년 9월 말 기준 15조52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47조86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영업은 대기업이나 PB(자산관리) 서비스보다는 중소기업·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소형 점포’를 이용한 수도권 진출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라 점포를 줄여나가는 시중은행과는 다른 전략을 폈다. 수도권에 소형 점포를 늘려 고객과의 접점을 늘렸다. 소형 점포는 건물 2층 이상에 입주, 직원 4~6명으로 운영해 고정비를 줄였다.

현재 전북은행의 수도권(경기도·서울·인천) 점포는 17개, 대전은 9개다. 광주는 31개, 두 은행의 소형 점포는 57개까지 늘었다.

그 결과 JB금융은 지방금융지주와의 경쟁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냈다. JB금융은 지난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5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한 2417억원을 시현했다.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DGB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 BNK금융은 6.39% 증가에 그쳤다.

올해는 지주사 회장직과 은행장직을 분리한 만큼 발전 속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광주은행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회장·행장직을 분리한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 김인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통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큰 폭의 순이익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며 “성장보다는 마진 관리에 집중하면서 이차이익 증가 추세 지속과 전북은행 중심의 자산건전성 개선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디지털·글로벌 강화 본격화

올해 은행권의 화두인 디지털·글로벌 금융 강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에 대비한 디지털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주력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모두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빛을 보진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올해 경영전략 중 하나로 디지털 금융 강화를 꼽

았다. 두 은행의 은행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지방은행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다짐을 내놓기도 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다각화에도 나선다. JB금융의 손자회사이자 전북은행 자회사인 프놈펜상업은행은 현지에 14개 점포를 두고 지난해 3분기 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6.8% 성장이다. JB금융은 현지화 전략과 그룹의 경영기법·시스템을 접목해 프놈펜상업은행을 캄보디아 3대 은행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JB우리캐피탈 해외법인인 JB캐피탈 미얀마도 4개의 점포를 갖고 있다.

광주은행도 최근 글로벌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 사무소를 열었다. 광주은행은 이번 중국 진출로 JB금융이 진출한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주요 거점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 사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 해외 영업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KB손보, 여성임원 비중 20%로 확대한다

**인혜원·김경애 상무 등 7명 등용
로드맵 정비 등 2020년까지 추진**

KB손해보험은 오는 2020년까지 사내 여성관리자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단행된 2018년 KB손보 임원 및 부서장 인사에선 임원 2명(자회사 포함), 부서장 5명 등 총 7명의 여성 인력이 등용됐다. 업계 내 여성임원 비율이 2.2%로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KB손보의 인사는 파격적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KB국민은행에서 신용리스크부장으로 근무해 온 인혜원 상무가 KB손보 리스크관리본부장(CRO)으로 옮겨왔다. 또 자회사인 KB손보C



김경애 KB손보CNS 상무, 인혜원 KB손보CNS 상무

NS의 운영지원부장이던 김경애 상무는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새로운 중책을 맡게 됐다.

부서장으로 발령 받은 5명 가운데 박영미 부장, 김경미 부장은 각각 인사부장과 영업교육부장을 맡았다.

KB손보는 지난 2016년부터 사내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이들을 위한 교육 및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로드맵을 정비하고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왔다. 당시 신설된 드림캠퍼스는 여성리더 육성이란 목표에 따라 진행되는 KB손보 최초의 여성사내대학 교육이다. 지난해 총 40명의 1기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현재 34명의 2기생들이 다채로운 커리큘럼에 맞춰 교육을 수강 중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12.4%의 여성관리자 비중을 오는 2020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지제도 강화 등 여성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가계대출 증가세 9개월 만에 주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효과
신용 등 기타대출은 21.6조 증가**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계대출 억제책을 펼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돈 빌릴 곳이 마땅찮은 서민들이 신용대출로 옮겨가면서 향후 대출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3월 2조9000억원 이후 9개월 만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

8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의 경우 지난해 3월 2조6000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

박용진 한은 시장총괄팀장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주담대 증가폭이 줄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주담대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면서 지난해 신용대출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지난 2008년 이후 최대치다. 잔액만 현재 200조원에 육박한다.

/이봉준 기자

‘방탄소년단’ KB국민은행 얼굴 된다

**‘성공 DNA’ KB 도전정신과 맞아
디지털플랫폼 ‘리브’ 광고 출연**

KB국민은행은 10일 글로벌 음악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과 모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정상급 아티스트를 제치고 2017 빌보드 뮤직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를 거머쥐며 글로벌 음악시장의 판도를 좌우하는 블루칩으로 급부상한 그룹이다.

특히 최근 선보인 ‘마이크 드롭(Mic drop)’ 리믹스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부를 넘어서는 등 출시한 뮤직비디오 중 12편이 1억부 이상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본인들만의 차별화된 장르와 음악, 특히 또래 세대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한국어 노



방탄소년단(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랫말로 담아 전세계를 무대로 끊임없이 도전해 온 방탄소년단의 성장에 주목해 왔다.

이번 모델발탁은 방탄소년단의 ‘도전, 혁신, 글로벌’이라는 성공 DNA가 KB국민은행이 추구하는 도전정신과 맞아 떨어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리아 베스트가 글로벌 베스트가 될 수 있다는 도전정신이 KB국민은행 브랜드정체성(Brand Identity)의 핵심”이라며 “방탄소년단은 과거 비보이, 김연아 선수 등이 보여준 ‘대한민국 1등을 넘어’ 광고 캠페인의 의미를 2018년의 정서로 재해석해줄 최적의 아티스트라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먼저 KB국민은행의 디지털플랫폼 ‘Liiv(리브)’의 영상광고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i@

우리은행, 서민 주거복지 안정 총력

서울투자운용과 임대주택 공급 MOU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서울투자운용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서울투자운용은 리츠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금융지원, 임대주택 매입 및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리츠설립에 대한 지원, 자산보관업무 등에 관해 상호 간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

서울투자운용은 2016년 6월 설립 이후 ‘서울리츠 1,2,3호’를 통해 행복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4000세대 이상 공급했으며, 현재 1조2000억원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2018년에도 임대주택을 2000호 이상 공급하고 복합개발사업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재 우리은행 부총장(오른쪽)이 김우진 서울투자운용 대표(왼쪽)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관계자는 “양 기관은 그동안 개별 사업단위별로 금융지원 서비스를 협의해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며 “이번 포괄적 협약을 계기로 서민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생활전문관 전경. /신세계백화점

대규모 리빙페어 두 달 앞당겨 개최

신세계백화점 ‘프리미엄 리빙 페어’ 생활관련용품 최대 50% 할인

신세계백화점이 두 달 앞당겨 대규모 리빙페어를 개최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2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센텀시티점 등 7개 점에서 ‘프리미엄 리빙 페어’를 열고 최대 50% 할인가를 앞세워 가전, 결혼·신학기 가구 수요 선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그 이유는 매년 1월, 생활 장르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월에는 새해 신상품을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는 동시에 이월상품, 세일상품 등을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다. 이에 혼수를 준비하는 신혼부부와 이사를 준비하는 가족, 방학을 맞이해 아이들 방을 꾸며주고 싶은 부모들까지 백화점을 찾는다고 신세계측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다음달로 성큼 다가온 동계스포츠 축제로 가전 수요도 늘어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동계스포츠 대회와 세계축구대회, 2016년 하계스포츠 대회 직전 한 달간의 가전 장르 매출을 살펴본 결과 TV, 사운드바, 미니빔 등의 수요 증가로 디지털 가전 장르의 매출이 상승했다. 올해 역시 2월 국내 동계 스포츠 대회로 대형가전 매출 실적이 기대되고 있어 생활·가전 행사를 함께 진행해 고객수요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동계 스포츠 대회를 기념, 삼성과 LG전자의 응원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삼성전자는 12일부터 21일까지 신세계백화점에서 대형가전 행사상품 두 품목 이상 구매 시 20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2%, 5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4% 추가할인을 진행한다. LG전자에서는 기간 중 울트라 HD TV 구매 고객에게 UHD 수신 안테나를 증정하며 행사모델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유진 기자

CJ제일제당, 美 공장에 5000만불 투자 글로벌 사료용 아미노산 사업 강화

‘쓰레오닌’ 신규 생산라인 구축 美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나서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사료용 아미노산 사업 강화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아이오와(Iowa) 공장에 총 5000만불(약 535억원)을 투자해 사료용 아미노산 ‘쓰레오닌’의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2분기 착공에 들어가 내년 중반부터 2만t 규모의 쓰레오닌을 본격 생산한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14년 미국 아이오와주에 10만t 규모의 라이신 공장을 건설한 바 있다.



CJ제일제당 미국 아이오와 바이오공장.

전세계 쓰레오닌 시장은 1조원 규모로, 북미시장은 이중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3000억원)과 중국(2000억원)에 이어 세계 3대 쓰레오닌 시장으로 꼽히지만 CJ제일제당에겐 아직까지 미개척지였다. 아지노모토(일본)와 ADM(미국), 푸펑(중국) 3사가 미국 쓰레오닌 시장 점유율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그동안 중국 심양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미국에 수출·판매하는데 그쳐 점유율이 미미했다. 이번 생산라인 구축으로 미국 내수시장을 집중 공략해 시장 지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1년에는 시장점유율 20% 수준까지 끌어올려 아지노모토와 CJ제

일제당 2강 체제로 시장을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쓰레오닌은 동물 사료에 들어가는 필수 아미노산 일종이다. 가족의 경우 곡물 사료만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받기 어렵다. 사료용 아미노산을 첨가해 체(體)내 필수 아미노산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사료용 아미노산으로 영양소 과부족을 최소화하고 소화효율을 높여 적정 수준 사용시 사료 효율도 개선할 수 있다. 허봉수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본부장은 “글로벌 사료용 아미노산 시장에서 독보적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쓰레오닌 사업 강화에 나서게 됐다”며 “공격적인

영업·마케팅 활동을 통해 미국 내수시장을 공략해 단기간에 시장지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J제일제당은 후발주자로 출발해 세계 유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단숨에 추격해 독보적인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지난 2015년에는 세계 최초로 전환경 바이오 발효공법으로 ‘5대 사료용 아미노산’ 체제를 구축한 기업으로 등극했다. 선제적·공격적 투자를 통해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영토확장에 주력하며 라이신과 트립토판, 발린 시장에서 글로벌 1위로 올라섰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KGC인삼공사 ‘정관장 케어나우’ 앱 론칭

KGC인삼공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앱인 ‘정관장 케어나우’를 론칭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관장 케어나우’는 사용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파악하여 가장 쉬운 방법으로 꼭 맞는 정보를 챙겨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 설치 후 7대 관심사(자녀성장, 갱년기관리, 피부관리, 기초체력강화, 스트레스 관리, 노화방지, 비만관리 정보)를 설정하면 관심사에 따른 푸시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푸시 응답을 통해 더욱 정확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앱의 가장 큰 강점이다. 만보기, 수면관리, 수분섭취 등 고객 맞춤 푸시 알람을 받고 건강 관리 활동에 참여하면, ‘정관장’ 제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및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



어 앱의 실용성을 더했다. KGC인삼공사는 2월 18일까지 앱 론칭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앱을 다운 받아 로그인하면 정관장 제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앱을 사용하여 건강 관리 과정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안마의자, 종합 건강 검진권, 정관장 알파프로젝트 제품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박민용 기자

편의점업체, 최저임금 인상에 줄폐점

인건비 부담에 개점 점포 줄어 고용·영업시간 축소 등 ‘빨간불’

올해부터 16.4%나 인상된 최저임금 부담에 편의점업체가 비상에 걸렸다. 최근 몇년 새 1인가구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편의점 점포수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다 결국 인건비 부담에 개점 점포가 줄었고 폐점 점포는 늘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CU, GS25, 세븐일레븐 등 국내 편의점 업체 빅3의 전월 대비 점포 순증 규모는 83개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CU는 44개, GS25는 25개, 세븐일레븐은 14개 순증했다. 순증은 개점 점포 수에서 폐점 점포 수를 뺀 값이다. 편의점 점포의 전월, 전년 대비 순증 값을 감안해보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CU의 2017년 12월 말 기준 점포수는 1만2503개로 2016년 12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 /연합뉴스

들은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간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심야영업을 중단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고 있다. 2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다점포 점주들은 점포를 줄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적용이 시행된 지 약 열흘이 지난 시점이라 아직까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한다”며 “최저임금이 적용된 인건비 정상 등이 있고 나서부터는 변화가 감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심야 매출이 보장되는 점포의 가맹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안고서라도 심야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면서도 “반면 심야 영업을 부담스러운 일부 가맹점주의 경우 분사측에 영업시간을 줄이겠다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m6326@

롯데칠성음료 게토레이 ‘KBL 올스타전’ 후원

롯데칠성음료가 ‘KBL 올스타전’에 스포츠음료 게토레이를 후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2017-18시즌 KBL 올스타전을 후원하고, ‘게토레이 3점슛 콘테스트’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13일에는 농구팬을 위한 이벤트가 개최된다. 각 팀을 대표하는 총 10명의 농구스타들이 참가해 3점슛 최강자를 가리는 ‘게토레이 3점슛 콘테스트 예선’과 대학 농구연맹 12개 대학을 대표하는 출신대학 선수들이 올스타팀을 이뤄 우승을 가리는 ‘3X3 농구 토너먼트’가 진행된다. 14일에는 올스타 팬투표로 선정된 총 24명의 선수가 ‘오세근 매직팀’과 ‘이정현 드림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펼치고, 전일 게토레이 3점슛 콘테스트 예선을 통과한 4명의 선수가 참여해 결선을 치러 KBL 최고의 슈터를 가린다. 롯데칠성음료는 14일 KBL 올스타전 활성화와 게토레이 브랜드 이슈화를 위해 60석의 특별석을 만들어 해당 좌석을 선착한 농구팬에서 게토레이, 수건, 볼



통 등 선물 패키지를 증정하는 ‘게토레이존’을 진행한다. 열띤 응원을 한 농구팬을 위한 이벤트인 ‘응원 타임’과 팀 별 첫 골을 넣은 선수를 맞추는 ‘첫 골을 잡아라’에서도 각각 50명, 10명을 선정해 게토레이 선물 패키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는 ‘게토레이’를 알리며 정구리그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경기마다 선수 및 농구팬과 호흡하며 게토레이 브랜드 노출 확대와 적극적인 응원을 유도하는 ‘게토레이걸’과 참여 이벤트 ‘응원 타임’, ‘첫 골을 잡아라’를 운영한다. 라운드마다 인기 치어리더팀을 선정해 해당 구단 연고지의 복지 단체를 경기예 초청하는 ‘사회공헌활동’과 정구 리그 종료 후 KBL 시상식과 연계한 ‘게토레이 인기상’, ‘게토레이 치어리더팀상’도 진행한다. /박민용 기자

티몬, 지난해 4분기 매출 45% 성장

슈퍼마켓·항공권 서비스 급성장

티몬이 지난해 4분기 전년 대비 45%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여행상품 거래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티몬은 2017년 4분기에 슈퍼마켓 매출 84%, 투어 자유여행 플랫폼 거래액 120%가 각각 상승하며 전체 매출이 전년 보다 45% 이상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크게 성장한 사업부문은 온라인 최저가 생필품 전문몰인 ‘슈퍼마켓’다. 소포장 묶음 판매, 당일 예약 배송 등으로 고객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4분기 슈퍼마켓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연내 성장률도 급상승했다.

연내 성장률도 급상승했다. 지난해 1월 시작한 신선식품 당일 배송의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1월 대비 12월 매출이 108% 증가해 2배 이상 이상 뛰었다. 티몬은 올해 건강식품, 수입식품 등 고성장예측되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상품을 확장하고 전담 배송 서비스를 고도화하면 연 매출 4000억원대 이상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자유여행 항공권” 예약 서비스도 4분기 성장을 견인했다. 티몬은 15개 여행사와 제휴해 국내에

서 가장 많은 항공권 운임을 간편하게 비교해 최저가 수준의 항공권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자유여행 항공권 예약률과 거래액도 증가했다. 지난 4분기 자유여행 항공권 예약자수는 31만명을 기록했으며 자유여행 항공권 서비스의 월평균 거래액은 2016년 대비 120% 상승했다. 또 티몬은 지난해 200여개의 딜에서 하루 1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특히 하루 1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딜의 50%가 4분기에 발생했다. 유한익 티몬 대표(사진)는 “티몬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면서 기존 사업에서도 실적 개선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m6326@



www.news1s.com

NEWS IS

뉴스1스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스**는
300여명의 국내 기자와 AP·신화통신 등과 함께
지구촌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뉴스1스의
10년, 100년을 위한
독자와의 약속

늘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 언론**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민완 언론**
약자의 편에 서는 **따뜻한 언론**
비리에 눈감지 않는 **강한 언론**
지구촌을 선도하는 **글로벌 언론**

공감언론 뉴스1스
NEWS1S

넷플릭스, 예능프로 ‘이상한 통편집’... 저작권 때문에?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실제 노래와 다른 배경음 나와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와 대조 넷플릭스 측은 공식입장 없어

#. “오늘 내가 특별히 여기서 부를게!” JTBC 예능 ‘아는형님’ 비투비 편을 시청하던 위모(32) 씨는 육성재의 민경훈 모창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창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음 장면이 이어져 어안이 병병했다.



위씨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플랫폼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였다. 위씨는 10일 “처음에는 출연자가 무엇인가를 하려다 마는가 했죠. 하지만 실제 방송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뒤로는 넷플릭스로 예능을 보지 않는다”며 “유료 서비스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일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본방송과 다르게 편집돼 비난을 사고 있다.

아는형님 아이오아이(I.O.I) 편을 보자. 도연이 “내 파트가 어디인지 알려주

겠다”며 다른 멤버들과 노래 ‘너무너무너무’의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실제 노래와 다른 배경음악을 들려준다. 강호동의 환호 등 본방송에 나오는 현장음도 지워진 채, 춤에 맞지 않는 음악과 자막 효과음만 재생된다.

사이니 편 역시 출연자가 춤을 출 때마다 아이오아이 편에서와 같은 현상이 이어진다. 본방송 그대로 노래가 나오는 네이버 N스토어와 폭(pooq) 등 다른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넷플릭스의 한달 이용료는 한 명 동시 접속 서비스 기준으로 미화 8.79달러(10일 기준 9396원)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냈더니 이상하게 편집된 방송이 나와,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경로로 봐야할 판”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넷플릭스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본방송과 다르게 방영되는 이유는 라이선스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이용 약관에는 회원이 모든 관련 법률과 제한 등에 따라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데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네이버 N스토어 등 국내 서비스 회원 약관에도 관련 법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항

목이 있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사례는 전 해지지 않았다.

넷플릭스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절찬 스트리밍’이라는 구호로 유명한 넷플릭스는 세계 190개국 1억9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미디어 기업이다. ‘더 크라운’ ‘기묘한 이야기’ ‘옥자’ 등 자체 제작 드라마와 영화로 연일 화제를 모았다. ‘하우스 오브 카드’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이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자사 드라마의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JTBC와 계약을 맺고 각종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tvN 드라마 ‘비밀의 숲’은 본방송이 끝난 즉시 해당 편을 내놓는 등 한국 콘텐츠의 전면적인 보강에도 힘써왔다. 최근에는 시트콤 ‘프렌즈’ 전 시즌 국내 스트리밍을 시작해 주목 받았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해외 항공·호텔 예약편 환불수수료 확인” “우리 토종개, 독특한 유전자로 한반도 정착”

한국소비자원, 가이드 제작·발표

#. A씨는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에서 홍콩 왕복항공권을 46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날짜를 잘못 선택해 결제 직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예약사이트는 전체 금액 중 항공사에서 환불했다는 세금 8만원만 환불해 줬다.

#. B씨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8개월 후 이용할 호텔을 예약한 후 더 저렴한 호텔을 발견해 예약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상품 계약시 ‘환불불가’ 표시를 확인하지 못해 해당내용을 재확인해보니 마우스 커서를 대었을 때만 영어로 환불불가 사항이 별도 안내창으로 작게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B씨의 항의 며칠 뒤에 한글로 ‘환불불가’ 메시지를 뜨도록 사이트를 수정했다.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한 후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피해에서부터 항공편 운송 지연, 호텔 이용 불가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항공·호텔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5년 2454건에서 2016년 3144건, 2017년(11월까지) 464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유형, 예약 단계별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정리한 ‘해외 항공·호텔 예약가이드’를 제작·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약가이드는 해외 항공·호텔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획됐으며, 인포그래픽을 이용해 리플릿(28p) 형태로 제작됐다. 한국관광공사, 해외 항공·호텔 예약 사이트 등에서 소비자 피해예방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여행 계획 시 ‘해외 항공·호텔 예약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국제거래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정보를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진돗개·풍산개·경주개동경 등 특대·코요테의 유전자형 많아

진돗개, 풍산개, 경주개동경이 등 우리나라 토종개의 뿌리는 야생 늑대를 공통 조상으로 기원했지만 각각의 독특한 유전적 다양성을 갖고 한반도에 정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은 10일 2018년 무술년 ‘황금 개의 해’를 맞아 한국 토종개와 야생·고대·현대의 개 33품종 2258마리의 유전체 분석결과를 비교·발표했다.

농진청은 개의 DNA에 존재하는 유전자형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유전자 칩을 이용해 개의 전체 유전체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우선 한국 토종개는 중국 개, 일본 개와 더불어 고대 개 품종들과 유전적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현대 품종들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진돗개, 풍산개, 경주개동경이 3품



풍산개(왼쪽부터), 진돗개, 경주개동경이.

/농촌진흥청

종의 유전적 근연 관계가 매우 가까웠고 외국 품종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국 토종개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집단을 구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한국 토종개는 다른 외국 개 품종에 비해 특대·코요테의 유전자형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한국 토종개들이 야생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토종개 중 야생 늑대의 유전적 특징은 풍산개, 경주개동경이, 진돗개 순으로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분석 과정에서 한국 토종

개들의 유효집단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호·육성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집단크기가 작아질수록 그 집단은 근친도가 높아지고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진다. 유효집단크기가 50마리가 되면 멸종위기에 가까워짐을 뜻한다.

현재 한국 토종개의 유효집단크기는 진돗개 흑구 485마리, 진돗개 네눈박이 262마리, 풍산개 백구 110마리, 경주개동경이 백구 109마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영동3교 보강 완료... 40t 중차량 통행 가능

11일부터 서울 영동3교에 40t 중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11년 5월부터 30t 초과 중차량 통행을 제한해 온 영동3교에 40t 차량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10일 밝혔다.

영동3교는 1986년 12월 폭 40m, 길이 160m로 건설된 왕복 8차로 교량이다. 분당 내곡간고속도로와 성수대교를 이어준다. 양재천을 가로질러 강남구 개포동과 도곡동을 연결한다.

서울시는 2011년 긴급안전진단 결과 영동3교를 통행하는 중차량으로 인해 내구연한이 저하되고, 노후로 인해 교량 상판 간격이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같은해 5월부터 중차량 통행을 40t에서 30t으로 제한해 왔다.

시는 영동3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2011년 5월~2012년 5월 하류측 교량 보수보강을 마쳤다.



영동3교량 전경.

/서울시

지난해 6월~10월에는 상류측 교량 보수보강을 완료했다. 이후 정밀점검 결과 안전등급 B등급을 판정받아 이번 통행제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영동3교 중차량 통행제한에 협조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범종 기자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감면받으세요”

서울시는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0일 밝혔다. 보통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12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받는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려면 이달 12일

부터 우편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 모바일 STAX를 활용하면 된다.

최초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계좌이체 해야 한다.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인터넷으로 납

3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10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의 전광판이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 30일 전을 알리고 있다.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가 전광판을 가리고 있다. 평창 올림픽은 다음달 9일~25일 17일간 열린다.

/이범종 기자

부해도 된다. 이번 달에 미리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7천270원, SM5는 5만1천950원, 그랜저는 6만2천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1월엔 서울에서 107만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만1천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 세금을 낼 수 있는 ‘ETAX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범종 기자

구혜선이 그리는 사랑과 파괴 “애착가진 우리 모두의 자화상”

두번째 개인전 ‘미스터리 핑크’
전시회 통해 단편영화 공개
“즐겁고 가볍게 감상하셨으면”

배우, 영화감독, 소설가, 화가 등 다양한 예술 장르 안에서 기량을 펼치고 있는 구혜선이 두 번째 개인전 ‘미스터리 핑크-MYSTERY PINK’로 관객과 만난다. 배우가 아닌 창작자로서의 예술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다크 옐로우-DA RK YELLOW’에 이은 두 번째 컬러 프로젝트 기획전이다. ‘사랑: 파괴적인 미스터리함. 그것은 당신의 자화상’이라는 부제 아래 사랑하는 이들의 일방적이고 관찰자적인 시점을 시간과 공간을 통해 담아낸 단편 영화와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을 담았다.



구혜선.



구혜선 ‘미스터리 핑크’. /파트너즈파크

10일 오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에서는 구혜선이 참석한 가운데 ‘미스터리 핑크-MYSTERY PINK’ 미디어아트가 열렸다. “지난해 개인전 ‘다크 옐로우’를 열고 이번에 ‘미스터리 핑크’라는 두 번째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영화 일을 하면서 굉장히 영화가 상용되는 공간이 많지 않고, 전시회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건강 악화에 시달렸던 구혜선은 걱정과 달리 밝은 미소로 등장했다. 영화제 출품을 통해 단편영화를 공개해도 되지만, 굳이 전시라는 매개를 통해 단편작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지난번 전시회장을 찾아주셨던 분들이 즐겁고, 가볍게 작품을 감상하셨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번에도 무료 전시회를 추진하게 됐다. 영화라는 것이 ‘평가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

신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번 컬러 프로젝트 전시의 주제이자 단편영화인 ‘미스터리 핑크’가 공개됐다. 10여분 남짓의 영화에는 서현진과 양동근이 주인공으로 분해 스토리를 끌고 간다. 구혜선은 “평소 굉장히 신뢰하는 배우 서현진 씨와 존경하던 배우 양동근 씨와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좋았다. ‘미스터리 핑크’는 사랑하기 때문에 파괴하고 싶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파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혜선의 ‘미스터리 핑크-MYSTERY PINK’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원천서 기자 tree6834@>



루지 국가대표 김동현이 지난 2014년 2월 4일 소치 올림픽에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육감과 반사신경으로 달린다 140km 쾌속 질주의 ‘짜릿함’

<평균>

알고보는 평창동계올림픽 5 루지

썰매라는 뜻의 프랑스어 ‘루지’
봅슬레이는 앉고, 루지는 누워서
제동장치 없이 헬멧·고글만 착용
1000분의1초 차이로 승부 결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열리는 썰매 3개 종목은 봅슬레이, 스킨레톤, 루지다. 봅슬레이와 스킨레톤은 꽤 익숙한 종목이 됐지만, 루지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다. 봅슬레이는 앉아서, 스킨레톤은 엎드려서 타는 썰매 종목이라면 루지는 누워서 타는 썰매다. 썰매라는 뜻의 프랑스어인 ‘루지(Luge)’는 쾌속 질주가 특징이다. 루지 선수들이 팬텀으로 느끼는 레이스 속도는 평균 140km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의 마누엘 피스터는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 앞서 캐나다 휘슬러 트랙에서 열린 대회에서 역대 최고인 시속 154km를 찍은 바 있다.

봅슬레이와 달리 루지와 스킨레톤에는 제동장치와 보호장구가 없다. 내리막 빙판을 내려오면서 훈련으로 체득한 육감, 반사신경만으로 썰매를 조종해야 한다.

지난 1964년 인스브루크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된 루지에는 남녀 싱글(1인승), 더블(2인승·남녀 구분 없음), 팀 릴레이 등 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팀 릴레이는 4년 전 소치 대회에서 도입됐다.

싱글은 이틀간 4번 주행한 기록을 합

루지
소셜 썰매에 누워 트랙을 질주하는 경사로 1964년 인스브루크대회부터 정식종목 채택
싱글은 이틀 동안 4번 주행한 기록을 합산하여 2인승은 하루에 2번, 팀 릴레이는 하루에 1번 주행한 기록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

루지
너비: 55.1cm

세부종목
남·여 싱글, 미혼·혼인부부 혼성, 팀 릴레이

장갑
손가락 폭도는 마디에 4mm 길이의 스파이크 장착

경기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8. 2월						
12	13	14	15	16	17	18

● 앞면 경기 (예선 등) ● 여타 경기

분으로 이뤄진다. 썰매의 중량은 1인승 최대 25kg, 2인승 최대 30kg다. 선수들은 스타트 라인에서 썰매에 앉아 출발선 양쪽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는다. 이를 앞으로 밀고 당기면서 탄력을 만들어 출발하는 형식이다. 출발과 동시에 손가락 끝 또는 마디에 약 4mm 길이의 스파이크가 장착된 양손 장갑을 이용해 트랙 얼음 바닥을 뒤로 밀어내며 추진력을 높이고, 일정 속도에 오르면 썰매에 누워 본격적인 레이스를 치른다. 특별한 보호장구가 없는 만큼 머리와 눈을 보호하는 헬멧, 고글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선수들은 트랙 밖으로 썰매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좌우의 벽 높이 50cm 이상으로 설계된 트랙에서 13~16개 커브를 지난다.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센터의 규격은 트랙 길이 1201~1344m, 출발점과 결승점의 표고 차 95~117m, 평균 경사도는 8.97%~9.69%다. 커브는 16개 구간으로 이뤄졌다.

산해 메달 주인공을 가리고, 더블은 하루 2번의 기록으로 시상대의 주인공을 정한다. 팀 릴레이는 여자 1인승~남자 1인승~더블 순으로 트랙을 주행한 뒤 합산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앞 주자가 결승선 터치 패드를 치면 후발 주자가 출발한다. 1000분의 1초 차이로 메달 색이 결정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한 종목 중 하나다. 루지는 크게 몸통인 포드, 강철로 제작된 썰매 날인 러너, 다리 사이에 끼워 썰매 방향을 조종하는 쿠펜 등 세 부

메트로신문이 직접 편집한 경제뉴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메트로신문을 볼 수 있어요!



뉴스스탠드 'MY뉴스' 구독 설정 방법

- 1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스탠드 > 전체언론사 리스트보기(≡) 클릭 > '종합/경제'에서 화살표를 눌러 '메트로' 찾아 구독 버튼 클릭!
- 2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스탠드 클릭 > 상단 '설정' 클릭 > '종합/경제' 클릭 > '메트로' 선택 후 '선택완료' 버튼 누르면 끝!
- 3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스탠드 클릭 > 상단 '설정' 클릭 > '종합/경제' 클릭 > '메트로' 선택 후 '선택완료' 버튼 누르면 끝!

오늘의 날씨

1월 11일
음력 : 11월 25일

수도권 날씨
-13 ~ -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연천 -16/-8, 동두천 -15/-6, 가평 -15/-7, 파주 -18/-8, 서울 -13/-8, 양평 -14/-6, 인천 -12/-8, 수원 -13/-8, 용인 -13/-8, 평택 -15/-7

해돋이 / 07:47 | 해질 / 17:3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와 은행권 특별기획세트가 예약 접수에 들어간다. 특별기획세트는 평창올림픽을 기념해 발행된 모든 기념주화 21종(금화 4종·은화 15종·황동화 2종)과 기념은행권(날장형·연결형·전지형)을 포함한다.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따른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 ▲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부산 아이파크가 지난해 브라질 바이아에서 임대했던 브라질 23세 이하(U-23) 대표 출신 호몰로(23)를 완전히 영입했다.
- ▲ 프로축구 FC서울의 베테랑 공격수 박주영(33)이 원소속팀 서울과 재계약했다. 박주영은 2020년 말까지 서울에서 뛰는다.
- ▲ NC 다이노스가 2017시즌 함께 했던 외국인 타자 재비어 스크릭스(31)와 계약금 40만 달러, 연봉 70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 등 총 130만 달러에 재계약을 마쳤다.
- ▲ 중국 반도핑위원회가 ‘여자 마라톤 왕자리(32)의 B샘플에서도 에리스로포이에틴(EPO, 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 성분이 검출됐다’며 “8년 동안 선수 자격을 박탈하고 벌금 4만 위안(약 655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왕자리의 코치 루치앙은 자격 평생 박탈과 벌금 8만 위안(131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 ▲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12일 경기도 이천 베어스파크에서 신인 선수 부모님 초청 행사를 한다.

서울지역 대학 정시 경쟁률 급상승

물수능·영어 첫 절대평가에 막판까지 눈치싸움 치열

원서접수 직전 인원 2~3배 몰려 상위권 7개 대학 경쟁률 6.91대1 정시모집 인원 감소 영향도 커

서울지역 대학들의 2018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상승했다. 원서접수 직전 모집인원의 2~3배수의 지원자가 몰려 막판 눈치 작전도 치열했다. 수능 영어의 첫 절대평가 도입과 쉬운 수능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불과 3시간 만에 홍익대학교 정시모집에 원서를 낸 지원자가 3752명 늘었다. 이 대학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1055명으로 원서접수 직전 모집인원의 약 3.5배의 인원이 몰려든 것. 이 학교 최종 경쟁률은 9.92대 1로 폭등했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했다. 대학별로 원서접수 직전 3시간만에 증가한 모집정원 대비 인원은 한양대가 2.94배, 연세대 2.20배, 성균관대 2.07배, 서울대가 1.98배, 서강대가 2.45배에 달했다. 마감전 4시간 동안 건국대 3.01배, 동국대 2.50배, 고려

(서울지역 대학 2018 정시모집 경쟁률)

대학명	2018학년도 (9일 최종)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인원	
건국대	1,436	11,538	8.03
홍익대	1,055	10,470	9.92
한양대	984	5,828	5.92
연세대	1,313	7,004	5.33
동국대	938	5,729	6.11
숙명여대	972	4,078	4.20
고려대(안암)	802	4,298	5.36
한국외대	660	3,376	5.12
경희대	743	4,406	5.93
성균관대	902	5,158	5.72
서울시립대	765	3,924	5.13
서울대	878	3,768	4.29
이화여대	747	3,721	4.98
서강대	501	3,084	6.16
총합계	12,696	76,382	6.02



대 2.53배, 한국외대 3.03배, 경희대 2.64배, 이화여대 1.66배 지원자가 늘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서울시내 14개 대학의 마감직전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만나질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경쟁률

이 3.47대 1에서 최종 6.02대 1로 약 1.7배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자로 보면 4만4061명에서 7만6382명으로 급증했다.

인문계열에서는 고려대 영어교육과가

마감직전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최종 경쟁률은 20.67대 1로 폭등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계에서는 건국대 식품영양학과가 1.88대 1에서 최종 12.13대 1로 큰 폭 상승했다.

이처럼 원서접수 직전 눈치작전이 치열했던 이유는, 올해 수능 영어의 첫 절대평가 시행으로 인한 변별력 상실과 타 과목의 영향력 증대 등 '풍선효과'에 따라 수험생들이 지원전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력평가연구소 김명찬 소장은 "올해 영어 절대평가 첫 시행으로 성적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때문"이라며 "특히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반영비중이 증가해 특정 과목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정시모집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해 마지막까지 눈치경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0일 각 대학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상위권 7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6.91대 1로 전년도 같은 기준의 6.21

대 1에서 크게 상승했다. 경쟁률 상승은 정시모집 인원 감소의 영향이 크다. 올해 이들 7개교 모집인원은 6027명으로 전년도 6595명에서 568명(8.6%p) 감소했다.

대학별 경쟁률을 보면, 서울대는 4.36대 1, 고려대 5.36대 1, 연세대 5.33대 1, 서강대 6.86대 1, 성균관대 6.42대 1, 중앙대 5.26대 1, 한양대 8.96대 1, 이화여대 5.0대 1, 경희대 5.93대 1, 덕성여대 8.18대 1, 성신여대 6.31대 1, 숭실대 8.12대 1, 명지대 6.59대 1, 삼육대 11.26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의과대 경쟁률은 소폭 하락한 반면, 일부 대학을 제외한 국공립대와 교육대학 평균 경쟁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 중 인하대 의대가 22.1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국 36개의 과대 평균 경쟁률은 전년 7.94대 1에서 올해 6.96대 1로 감소했다. 전국 9개 거점 국공립대학 평균 경쟁률은 4.88대 1(전년 4.38대 1)이었고, 12개 교육대 평균 경쟁률은 3.56대 1로 전년 3.26대 1에서 상승했다. 국공립대 중 강원대, 충남대, 경북대 경쟁률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中企보다 스타트업... 올해 취업전망 '맑음'

사람인, 기업유형별 채용현황 분석 스타트업 성장·투자 등 지원 시작

경기 지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지만 취업자 수는 좀처럼 30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채용 계획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스타트업 취업 전망은 '맑음'으로 분석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유형별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스타트업 취업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취업 전망이 좋은 이유는 지난해 스타트업 성장과 투자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고, 올해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청사진이 나왔다. 우선 정부는 올해 1조원 이상을 출자해 3조원 이상 규모의 혁신·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혁신·벤처기업이 대규모 성장과 확장이 필요할 때, 초기 투자와 연계한 후속 투자로 자금을 수혈받아 기업 가치 제고에 활용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형 스타트업 기업에 정부 지원금을 보조하는 정책도 시행되고 대기업과 벤처캐피탈의 투자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이 국내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한 코빗을 약 913억원에 인수하며 인수합병(M&A)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해 가장 주목받은 비바리퍼

블리카의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는 글로벌 회계·컨설팅 회사 KPMG와 벤처캐피탈(VC) H2벤처스가 선정한 2017년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35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5년 초 10명 남짓하던 임직원은 2년 새 115명으로 늘었고 채용도 확대될 전망이다.

네이버도 스타트업 육성센터를 통해 창업자를 지원하는 등 적극 투자도 눈에 띈다. 명함관리 '리멤버'에 50억 원, 우아한 형제들에 350억 원 등 기업 자체에 투자를 한다.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면 스타트업 성장에 따른 채용시장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올해 채용 기상도는 '흐림'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 이슈로 인해 채용 전망이 불투명하다. 사람인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585명 대상 새 채용계획을 설문한(6%) 결과, '지난해와 비슷'(51.6%)하거나, '더 악화될 것'(25.6%)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는 '전년과 동일'(39.7%)하거나 '감소'(17.5%) 할 것이라는 답변이 우세했다.

/한용수 기자



학생들이 만든 구명조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진로교육 페스티벌에서 학생들이 만든 구명조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 이끌 전문인력 8000명 양성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 성장을 이끌 산업·에너지·무역 등의 전문인력 약 8000명을 양성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도 산업부 인력양성계획'에 따르면 올해 산업별 전문인력 2684명, 지역 연구인력 2463명, 에너지 전문인력 1500명, 무역 전문인력 1280명, FTA 전문인력 150명 등 8000여 명의 산업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 5340명에 대한 평생학습 교육, 전국 71개 공과대학생 2만 1000명의 창의적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육 지원,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120명의 재취업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400억원보다 4.5% 증가한 1463억원을 올해 투입할 예정이다.

분야별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산업분야의 경우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첨단 신소재 3D프린팅, 친환경·스마트선박,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고신뢰성 기

계부품, 고부가 금속소재 등 5개 신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을 신설하고 미래형자동차·드론·바이오·나노융합 등 기존 22개 인력사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도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전력·원자력 분야에서 학부·대학원생·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R&D와 연계를 강화한 지원으로 현장맞춤형 연구전문인력 1500여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대상으로는 ▲R&D연구과제 지원전문가 과정 ▲연구장비(SEM, TEM 등) 오퍼레이터 과정 ▲정보통신(ICT) 기반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양성과정 등 산업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산업인력양성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강화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영남권 학교 내진보강 앞당겨”... 교육부, 예산 1000억 증액

내진보강 완료시기 10년 단축키로 2024년까지 평균 1700억원 투입

전국 초·중·고교의 내진보강 사업이 앞당겨진다.

교육부는 영남권 등 지진위험지역에 향후 7년간 1조1900억원을 투입,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2024년으로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완료 소요 기간도 5년 단축될 전망이다.

우선 지진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 학교 건물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원을 투입해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2024년으로 10년 단축하기로 했다. 지진위험 이외 지역은 7년간 매년 1800억원을 지원한다. 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3600억원을 투자해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5년 단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매년 35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지난해 포항지진에 따라 파손된 235개교에 피해복구비 202억 원과 내진보강비 49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국립대학도 올해부터 5년간 당초 예산의 2배인 매년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기존 202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단축한다. 2018년 현재

국립대학 내진비율은 56.4%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긴급 대피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강당이나 체육관 등을 내진특등급으로 설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내진 성능평가와 설계 등을 담은 매뉴얼 개발도 추진한다.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 11월 포항지진 피해로 안전에 위협받던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학교 시설 내진보강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종합] 2인자 황각규 부회장 승진 50대 CEO 전진배치 06



Life

[금융]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게릴라점포' 수도권 공략 11



민족의 비극 배우고 안보관 쌓고 온 가족 함께 역사 나들이



지하철은 문화를 싣고

⑦ 4·6호선 삼각지역 - 전쟁기념관

호국영령 기리고 전쟁역사 배우는 우리나라 대표적 전쟁사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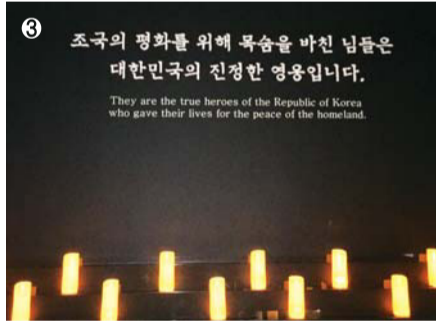
6·25 추모실 등 9개 전시실 생생함 느껴지는 야외 조형물 어린이 위한 체험 교육공간도

전쟁의 역사를 배우는 동시에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이다. 전쟁기념관(관장 박삼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쟁사 종합 박물관이다. 1994년 6월 10일 개관한 이래 호국안보와 상무정신 함양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010년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한 이후로는 매년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해온 대표적인 안보명소이기도 하다.

최근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님, 연인, 군인에서부터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연령과 국적의 사람들이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홍보팀 관계자 말에 따르면, 군인의 경우 부대에서 교육차원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많이 찾는다.

우리 민족이 겪은 대외항전의 역사와 함께 민족사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 등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 교육장인 전쟁기념관은 호국추모실, 전쟁역사실, 6·25전쟁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기증실, 대형장비실 등 9개의 육내 전시실과 각종 대형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옥외전시장, 어린이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지 면적 3만 5000여 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만 4000여 점 소장품 중 7000여 점이 전시 중이다.

◆전쟁의 역사를 한눈에



- ① 시민들이 건국 이후 6·25전쟁 및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국군, 경찰관, 유엔군 전사자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는 공간을 견고 있다.
- ② 평화의 시계탑.
- ③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하는 호국추모실.
- ④ 비상대비체험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아이들.

관람은 ▲호국추모실 ▲전쟁역사실 ▲6·25전쟁실 ▲기증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순으로 이뤄진다. 호국추모실의 한쪽 벽면에는 '조국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님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촛불이 어둠속에서 불을 밝히고 있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한다. 추모공간을 지나자 반구 형태의 조형물 '창조'가 나온다. 태양광선이 한반도를 의미하는 반구 중앙의 샘솟는 물과 만나 창조를 표현한 것으로 민족의 영원성을 상징한다.

전쟁역사실은 선사시대부터 이 땅을 지켜온 우리 선조들의 대외 항쟁사와 각종 군사 유물들이 전시된 공간이다. 살수

대첩, 귀주대첩을 비롯한 여러 전쟁들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림과 실제 유물 등을 통해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6·25전쟁실은 북한군의 남침 배경부터 전쟁의 경과 및 정전협정 조인까지 6·25 전쟁의 모든 과정을 전시한다. 6·25 전사자의 유해 발굴 현장을 바닥에 그대로 재현한 전사자 유해발굴 상징존에서부터 인천상륙작전 4D체험관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3층에는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재현해놓은 공간이 있다. 21개 참전국 전사자를 추모하는 진혼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6·25전쟁 관련 영상과 국기 등을 보여주어 있었다. 이외에도 유엔참전실, 유엔참전국 지원현황 등을 통해 유엔참전국 참전용사들을 기린다. 전시장 한편에는 고대부터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사연이 담긴 기증 유물들이 전시된 공간인 기증실이 있다.

해외파병실은 대한민국 국군의 해외 파병 활동과 유엔 평화유지 활동상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F-15K 전투기 3D 체험관에서는 F-15K 전투기에 실제 탑승한 것과 같은 생생한 체험을 선사한다.

◆전쟁역사 배우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

어린이들에게 전쟁이라는 주제는 무겁고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을 찾아보자. 어린이박물관은 4세부터 10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전쟁역사와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직접 만지고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체험형 교육공간이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된 공간이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는 전쟁 속에서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실제 무기 40여 점이 전시된 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놀이방과 어린이유격장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어린이박물관은 매일 9회씩 정해진 시간에 입장 가능하며, 관람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현장접수로 이뤄진다.

◆야외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거대 조형물

전쟁기념관을 걷다보면 다양한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6·25전쟁 조형물, 유엔참전용사 기념비, 전사자명비, 평화의 시계탑, 형제의 상, 참수리

357호정 안보전시관, 야외전시장이 있다. 평화의 시계탑은 전쟁기념관 정문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조형물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평화기원을 두 소녀를 통해 나타낸다. 한 소녀가 안고 있는 시계는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며, 다른 한 소녀가 안고 있는 시계는 6·25전쟁 발발과 함께 멈춰버린 시간을 상징한다. 시계탑 바로 옆에는 또다른 시계가 하나 놓여있는데, 이는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시계로 통일이 되는 날 이 시계를 시계탑에 올려 통일의 시각을 표현하겠다는 의미다.

전쟁의 역사를 살펴봤다면 전쟁에 대비하는 방법 또한 배울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2007년 9월 개관한 '비상대비체험관'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서부터 방독면 착용요령, 심폐소생술 방법 등을 소개한다. 아이들도 알아듣기 쉽다.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이라고 쓰여있는 스크린을 터치하자 귀여운 아이의 목소리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안소영 비상대비체험관 관장은 "학기중에는 단체 예약으로 일정이 꽉 찬다"라고 말했다.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안보명소로 자리잡은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은 세계 여행전문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가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드' 명소 부문을 선정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5년 연속 3위 안에 올랐다. 2015년에는 주요 관광명소를 제치고 1위에 선정됐고, '2016년 아시아 랜드마크 TOP25'에 대한민국 명소로는 최초로 경복궁과 함께 전쟁기념관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대화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전쟁기념관 홍보관계자는 "외국인에게는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점에 흥미를 가지고 찾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쟁기념관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쉰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오후 8시까지 개방한다. 입장료는 무료다.